제13회 KOICA 글짓기 모음집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제13회 KOICA 글짓기 모음집

인쇄 2010년 10월
발행 2010년 10월
발행인 박대원
편집인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주소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므로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제13회 KOICA 글짓기 모음집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인사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대원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청소년들의 진지한 성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살며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국제 개발 협력'을 주제로 「KOICA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KOICA 글짓기 공모전」은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올해로 벌써 열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공모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이 된 것은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함께 잘사는 인류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전 응모작들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청소년 여러분들의 각오와 자세에 대한 진지한 성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 안에서 가난, 질병, 기아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지구촌 이웃을 돕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빈곤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돕고자 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함께 잘사는 인류 사회 건설을 향한 KOICA의 노력은 분명히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원조를 주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서서 '두 손으로 주는 따뜻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없이는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번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보여준 지구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도움을 '두 손으로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끊임없이 지속되길 바라며,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성장해주길 당부합니다.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 대 원

심사평



심사위원장
박종권

우리나라의 미래 주인공들이 글로벌 의식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번 심사의 큰 수확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상당히 글로벌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 자원봉사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으며, 인류애와 지구촌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응모한 글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큼 도약한 우리나라의 미래 주인공들은 이에 걸맞은 글로벌 의식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먼저 초등 부문 대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낀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우리나라의 풍요와 제3세계의 빈곤을 대비하며 순수하면서도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몽골을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몽골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한국인들에게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장차 스스로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가꿀 것을 다짐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글의 구성이 탄탄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깝게 금상을 차지한 글에서 글쓴이는 '나눔'을 강조합니다. 자신 또한 누군가의 쿠키가 되고 싶다는 대목에서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등부 대상은 심사위원단의 논란 끝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글쓴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풍요에 젖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아깝게 금상으로 결정된 글은 원고지에 또박또박 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응모한 데 비해 200자 원고지에는 글쓴이의 진정성과 침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지만 큰 기부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이름 모를 '동생'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냅니다. 비록 대상이나 금상에 들지 못했지만, '소다 가이치와 사랑의 역전극'은 글짓기의 측면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고등부 대상은 네팔에서 벌인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글쓴이는 지구의 오지 네팔의 상황이 단지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꼭 물질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행복의 척도를 빈부로 가르는 천박함으로부터 서로 나누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행복을 배울 수 있다는 성숙한 의식의 내면을 체험적으로 담담하게 풀어놓습니다. 글의 구성과 메시지 측면에서 매우 빼어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상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를 통해 함께 숨 쉬는 세계인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무지갯빛 나눔의 추억'은 몽골에서의 봉사활동 체험을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 단락으로 나눠 서술했습니다. 무지개는 몽골인들이 한국을 무지개라는 뜻의 '솔롱고스'라고 부르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독특한 글 구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글짓기 공모를 통해 재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글 솜씨만이 아니라 그 글이 담고 있는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이었습니다. 비록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심사위원장 박 종 권

차 례

인사말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청소년들의 진지한 성찰 … 2

심사평 우리나라의 미래 주인공들이 글로벌 의식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번 심사의 큰 수확 … 4

초등부

대 상 **오은현** 중앙초등학교 —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 10
금 상 **정수현** 부천부곡초등학교 — 찬드라야, 조금만 기다려! … 15
후원기업상 **김재유** 시흥서해초등학교 — 까만 동생 … 18
은 상 **김다원** 의정부효자초등학교 — 세상에 전하는 소박한 희망 … 21
동 상 **이도헌** 광릉초등학교 — 은혜 갚은 까치와 코이카! … 24
동 상 **조하민** 인지초등학교 —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 29
동 상 **민지원** 창영초등학교 — 모두 함께 잘사는 지구촌 … 32
장 려 상 **손소영** 대전서부초등학교 — 내리도움 … 36
장 려 상 **류영우** 서동초등학교 —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시작해보자 … 39
장 려 상 **이소윤** 부천부곡초등학교 — 캄보디아의 바리공주 … 42
장 려 상 **손유나** 대전내동초등학교 — 더불어 사는 지구촌 … 45
장 려 상 **장석주** 하중초등학교 — 사랑의 씨앗 … 48

중등부

대 상 **김예진** 금옥중학교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52
금 상 **박진하** 죽전중학교 —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각오와 자세 … 55
후원기업상 **홍윤기** 한영중학교 — 소다 가이치와 사랑의 역전극 … 58
은 상 **김경민** 서울창일중학교 — 난망지은(難忘之恩) … 62
동 상 **이혜민** 웅산여자중학교 — Dear My Friend from Another World … 65
동 상 **임경빈** 대전만년중학교 — 좋은 파트너, 대한민국! … 68
동 상 **박하람** 동명여자중학교 — 희망 농장의 농부가 되어보실래요? … 72
장 려 상 **장지은** 서해중학교 — 빛바랜 추억 속에 피어나는 희망 … 75
장 려 상 **김균희** 서울예원중학교 — 나를 성숙시킨 선물 … 79
장 려 상 **윤나루** 보성여자중학교 —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 82
장 려 상 **박선현** 상주성신여자중학교 — 관심으로 짜내는 털모자 … 85
장 려 상 **손예진** 화명중학교 —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 88

고등부

대 상 **김수연** 이화여자고등학교 — 나마스테, 쁘롬가르쵸 … 94
금 상 **김지혜** 서해고등학교 — 어린 생명의 노랫소리 … 100
후원기업상 **김경헌** 한국과학영재학교 — 무지갯빛 나눔의 추억 … 104
은 상 **서다혜** 예당고등학교 — 정의와 평등으로의 여행 … 110
동 상 **윤혜원** 경희여자고등학교 — 나눔은 희망,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었습니다 … 115
동 상 **윤인영** 점촌고등학교 — 아디티의 이야기 … 119
동 상 **김예은** 백암고등학교 — 아기 코끼리 두 마리 … 123
장 려 상 **황은석** 성문고등학교 — 울어라, 눈이 팅팅 부을 때까지 … 127
장 려 상 **이준헌**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대한민국! … 130
장 려 상 **이은정** 분당대진고등학교 — 앙골라 왕자의 가르침… 134
장 려 상 **탁희연** 선일여자고등학교 —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 … 137
장 려 상 **김이수** 백현고등학교 — 케냐에서 받은 선물, 큰 물음표 … 140

지도교사 소감문

한소연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 아름다운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 … 146
이효원 웅상여자중학교 교사 — True Pleasure from True Contribution with Love in Everyday Life … 148

해외 탐방 견학기

교 사 **이명섭** 부천부곡초등학교 — 버리기와 채워나가기 … 152
대 상 **오은현** 중앙초등학교 — 네팔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오다 … 157
금 상 **정수현** 부천부곡초등학교 — 네팔에 희망을! … 161
대 상 **김예진** 금옥중학교 — 언니에게 들려주는 네팔 이야기 … 163
금 상 **박진하** 죽전중학교 — 만남도 헤어짐도 나마스테 … 167
대 상 **김수연** 이화여자고등학교 — 네팔을 향한 나의 인사, 최고!… 170
금 상 **김지혜** 서해고등학교 — 네팔을 다녀와서 …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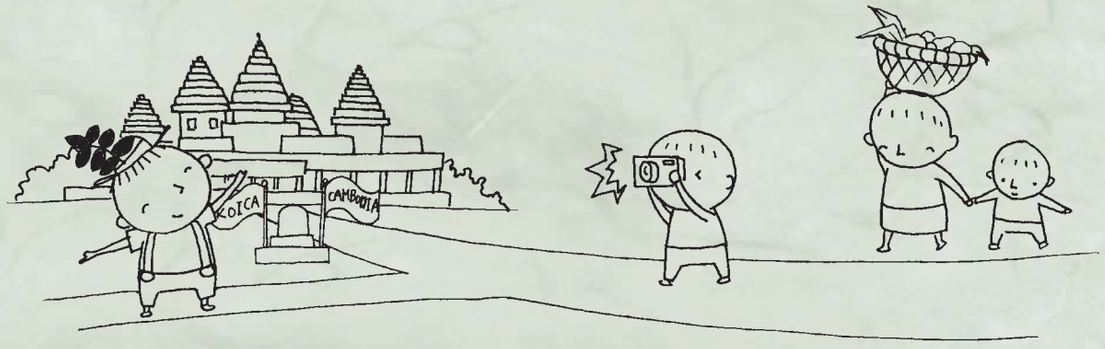
KOICA를 소개합니다 … 178
제13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180
편집후기 … 182
제 14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안내 … 183







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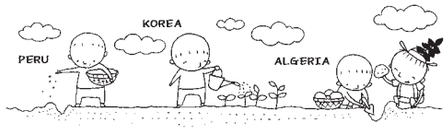


초등부
대상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오은현
중앙초등학교



얼마 전, 담임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처참하였다. 아프리카에 봉사단원으로 간 분이 찍은 사진이었다. 처음, 난 그 사진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단지 '어린 한 소년이 메마른 초원에 마치 죽을 힘도 없는 사람처럼 몸에 벌레가 붙어 있는 채로 가만히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외로이 혼자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옆에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며 소년이 언제 죽을까 생각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봉사단원은 너무 놀라 사진을 찍자마자 빨리 그 아이를 구해주었다고 선생님은 덧붙여 설명해주셨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프리카에는 3초마다 한 사람씩 굶어서 죽어간다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간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별생각 없이 남겼던 음식들이 생각이 났다. 난 집에 와서도 사진 속 아프리카 소년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그래서 난 이 소년처럼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아프리카를 좀 더 알기 위해 내 책꽂이에 꽂혀 있던 세계지도를 펼쳐보았다. 지도에는 각 나라의 위대한 인물의 사진과 함께 잘살고 있는 생활 모습 사진이 붙여져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의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진 아프리카의 모습은 마른 몸, 푹 꺼진 눈, 튀어나온 배……. 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처참한 전쟁의 상황도, 처절한 배고픔도, 또한 신체적으로 큰 아픔도 겪어보지 못한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저 건너편에는 굶주리고 배고파 우는 내 또래의 아이들도 있고, 몸이 병들어 아파도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 왔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이런 지구촌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적지만 매달 기부를 한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칠순 잔치에 사용될 비용을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보내셨고, 나도 내 용돈의 일부를 매달 모으고 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액수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내 작은 소망을 담아 동전 한 개 한 개가 모여 한 끼의 식사와 우유 1리터를 바라는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될 그날을 위해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 나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천사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포옹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쌍둥이 동생이 죽어가는 형을 가슴에 품어 살린 기적처럼…….

5학년 때 몽골에 갔을 때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밤 12시가 넘어 도착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느낌이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상주의 작은 기차역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중 나오신 아빠 친구 분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는데, 포장이 되지 않아 몽골의 말을 타고 달리는 것같이 차가 툴툴거리고 요란하였다. 그렇지만 여행에 지쳐 피곤하여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잠을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구름이 손에 잡힐 듯 머리 위에 있었고, 사방이 푸른 초원으로 펼쳐져 난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 줄 알았다. 너무 아름다웠다.

아빠의 친구 분은 몽골에서 선교도 하시고 우리말과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셨다. 우리는 아빠 친구 분의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1시간이나 달려도 푸른 초원만 펼쳐져 있었다. 길 양옆에 길게 늘어선 검은 색깔의 전주가 참으로 인상 깊어 보였다. 그리고 가끔 말과 소떼, 양떼들과 함께 목동들은 말을 타고 평화롭게 노닐고 있었다. 정말 한국과는 너무 달랐다.

아침에 몽골의 하늘과 초원을 보고 천국과 같다고 생각한 것은 이내 깨어졌다. 몽골 학교에 가보고 나는 너무도 실망하여 기절할 정도였다. 당연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처럼 큰 건물과 넓은 운동장,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다. 나무판자로 지어진 학교 건물과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옆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어 냄새 또한 지독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얼마나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지, 얼굴을 찡그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해 간 축구공과 볼펜, 노트 등 학용품을 나누어주자 너무도 고마워하였다. 우리는 한국말로, 몽골 친구들은 몽골말로 말이 통하지 않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함께 손잡고 놀이도 하고, 팀을 나누어 축구도 하면서 함께 소리도 지르고, 웃고 떠들면서 몽골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몽골 친구들과 짧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과 손짓,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따뜻한 가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어기'라는 학생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다. 처음으로 몽골인들이 사는 게르 앞에 왔는데 순간 망설여졌다. 사회 시간에 몽골인들의 집에 대해 배울 때, '세상에 이런 집도 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르는 수학 시간에 배운 원뿔 모양으로, 버드나무로 짜서 얇은 천으로 둘러진 집이었다. 냉장고도 수돗가도 화장실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고 겨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게르의 주인이신 어기의 할머니께서 우유와 방금 구운 빵을 모두 꺼내와 우리들 앞에 내놓았다. 아빠 친구 분이 몽골에서는 주는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결례가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면서 이들의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보며 '아! 몽골인들이 겨울의 매서운 영하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따뜻한 보일러가 아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내가 준비해 간 작은 양말과 작은 선물을 주어 나눔을 실천하였다.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빠는 몇 년 전 몽골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더 해주셨다. 몽골 국립대학에서 우리말 한글과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해외봉사단을 만난 이야기와 한국과 몽골이 함께 세운 한방센터에서 의료 활동을 펼쳐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봉사단원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지구촌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세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우리 집 거실에는 할아버지와 아빠 형제들 모두 함께 찍은 대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 있다. 올해 초 가족사진 밑에는 다른 가족이 덧붙여졌다. 아빠와 나란히 찍은 사진 속에는《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의 주인공인 김태연 회장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신다. 아빠는 서점에서 이분의 자서전을 우연히 읽고 회장님의 책 150권을 사서 아빠 학교 학생들에게 읽히고 난 후 나와 동생들 모두 읽도록 하셨다.

올해 초 아빠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직접 가셔서 김태연 회장님을 만나고 오시고 난 후, 가족사진에 덧붙여져 우리 가족이 되었다. 김태연 회장님은 미국에서 폭력, 마약, 가정불화 등으로 방황하여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태권도 교육으로 올바르게 지도하여 세계적인 기업가들로 키우신 분이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인 김태연 회장님의 삶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왔지만 실패하여 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이분의 생신이 되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틈틈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라고 외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CAN DO 정신을 심어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다.

그렇다. 몽골에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교사님, 몽골의 한방센터에서 가난한 몽골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속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코이카 언니와 오빠 단원들, 집도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가르치며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김태연 회장님 같은 분들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참모습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도 했고, 그녀들도 했다. 왜 나는 못하는가? 제2의 코이카 단원 오은현! 제2의 김태연 오은현!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소리가 중국과 몽골 초원을 넘어 아프리카 소년들에게 들리도록 꿈과 희망을 모아 크게 외쳐본다.

초등부
금상

찬드라야, 조금만 기다려!



정수현
부천부곡초등학교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상냥함이다.'



얼마 전 읽었던《로쿠베, 조금만 기다려》라는 책에서 아이들은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를 구하기 위해 로쿠베의 친구인 쿠키를 바구니에 태워 내려보낸다. 로쿠베가 쿠키와 함께 바구니를 타고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구니에 로쿠베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쿠키가 바구니에서 뛰어내린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눔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손짓만을 했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적은 없는 것 같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쿠키가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 반에서는 많은 나눔 활동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활동들도 모두 쿠키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다.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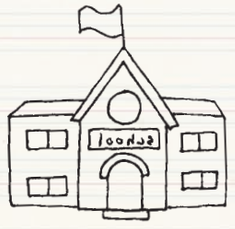
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눔이란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런 나눔 활동들도 아직 어린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 반에서 했던 나눔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나눔의 음식 만들기'였다.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활동이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재밌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가난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었다. 또한 우리 반에서는 경매를 해서 우리가 가져온 물건을 판 후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경매',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쓰면 주는 콩을 모아 기부하는 '콩 모으기 활동', 캄보디아의 수존을 위해 모았던 저금통인 '100원의 기적', 나눔을 실천하고 쓰는 일기 '나눔 일기', 나눔과 관련된 내용의 판화인 '나눔 다색 판화' 등을 했었다. 모두 나에게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도 바구니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걸까? 처음에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의 일에 신경 쓴다는 것이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다. 21세기,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모두 함께하는 지구라는 것이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도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1950~60년대,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덕분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대열에 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차례이다.

오늘, 우리 반은 현장학습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다녀왔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교육, 보건 의료, 농촌 개발, 정보 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여성 분야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고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건설해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학교를 건설해주었더니, 그곳의 선생님과 마을 어린이들이 한국국제협력단에게 정말 고마워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부끄러워졌다.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학교, 학원을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이 하는 일을 직접 보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이 밖에도 세계에는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UNEP,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UNICEF와 HABITAT 등 세계는 지구촌 시대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라는 책에 나오는 찬드라는 길거리에서 산다. 그런데도 동생 꼬따를 돌보고, 구걸을 해 돈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찬드라는 나보다 훨씬 의젓한 것 같다. 특히, 가장 감동을 받았었던 것은 "저는 큰 아이라서 조금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동생 꼬따는 어떡하지요?"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에게 살 집을 지어주고, 깨끗한 마실 물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다. 지금은 내 꿈의 바구니를 만드는 과정이어서 쿠키처럼 고통을 나누려 바구니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자라고, 나의 꿈바구니도 완성되면 반드시 바구니에서 뛰어내려 직접 캘커타와 같은 어려운 곳에 가서 제2의, 제3의 찬드라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상냥함이니까.

"찬드라야, 조금만 기다려!"



초등부
후원기업상



까만 동생

김재유
시흥서해초등학교



요즘 지구는 지름 22cm의 축구공 하나로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온 국민이 열광하기도 하고 아쉬움에 잠도 못 이루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 가족은 월드컵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집 안 곳곳에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수건과 장식품들을 비치해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치며 밤을 세워 응원하였다. 하지만 내가 응원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는 곳, 부부젤라의 소리가 '부우' 울리는 그곳은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제19회 월드컵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쪽에는 내 동생 기르마 시토타가 살고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있다. 우리 가족과 나는 치킨과 간식을 먹으며 '대~한민국'을 외치다가 벽에 걸린 지도로 눈길이 향했다. 아프리카 쪽을 살펴보다가 기르마 시토타도 TV를 보면서, 아니면 간식을 먹으며 월드컵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나와 대한민국의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서 '대~한민국'을 큰 소리로 응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다. 내가 에티오피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초청하신 코이카 강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형과 어머니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굶주린 어린이를 후원하였었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코이카 초청 강연을 통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비정부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돕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코이카는 이런 작은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도 하고 병원, 학교도 설립하여 그들이 6.25전쟁을 딛고 일어선 우리처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정부기구였다. 코이카 패밀리의 활약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코이카가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펼치고 있는 봉사와 나눔, 빛과 약이 되어주는 활동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초청 강연이 끝나고 나도 우리 가족처럼 작은 도움, 아니 어린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용돈을 모아서 저금하는 통장으로 새로운 동생을 맞이할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이 계획의 결과 난 새로운 동생을 갖게 되었다. 내 동생의 이름은 기르마 시토타다. 나이는 8살이고 귀여운 여자 아이다. 사는 곳은 앞서 말한대로 에티오피아다.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들러서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내 용돈이 기르마 시토타에게 약과 책과 우유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다. 하지만 기르마 시토타의 사진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표정한 얼굴과 유난히 노란빛이 심한 눈은 검은 피부의 그 아이가 사진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께서는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그



런 것 같은데, 결국 가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끔씩 반찬 투정을 하던 내 모습과 식탁 위에 가득한 간식거리들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지금도 세계 여러나라의 많은 아이들은 시토타처럼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질병에 방치되어 있고 학교의 부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치르고 새마을 운동이 생기기 전 그들처럼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였다. 그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단계에 이르기 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과 국제기구의 구호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반대로 교육, 보건, 농촌 개발, 해외봉사활동을 코이카를 통해 나누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기본에는 베풂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 5학년 담임선생님께선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비정부기구의 식료품 및 생활지원도 꼭 필요하지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제도 및 병원 등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다. 하지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에는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토타 같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년 우리 반에서 실천했던 것 중에 '멘토와 멘티' 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짝꿍에게 숙제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했다.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는 형을 멘토로 삼았다. 주말마다 수학 공부를 한 단원씩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해서 짝에게 나의 수학 설명하는 실력까지 좋아졌다. 짝꿍뿐만 아니라 나는 어두운 얼굴의 기르마 시토타에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훌륭한 어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멘토였으면 좋겠다. 내가 보내는 후원금으로 공부를 하고 건강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번 편지에는 방실방실 웃고 있는 내 동생의 사진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초등부
은상

세상에 전하는 소박한 희망



김다원
의정부효자초등학교



나에게는 특별한 인연으로 새롭게 생긴 동생이 한 명 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작고 귀여운 체구를 가진, 먼 나라 필리핀의 꼬마 아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된 나의 두 번째 동생 애론이다.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서 애론이 그려서 보내준 그림이나 애론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서툰 솜씨지만 애론의 그림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애론이 좋아해줄까 내심 기대하면서 멋진 그림을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답장 편지를 쓰고는 한다.

더불어서, 나는 요즘 우리 가족이 애론과 만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편지 번역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 통 한 통 편지들을 읽다보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재미있는 내용의 편지들도 많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꼬마 아이들의 편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쓴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어느 편지에서든지 후원하는 어린이에게 보내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

그런데 며칠 전, 내가 편지 번역을 하고 있을 때, 엄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내게 물으셨다.

"다원아, 컴패션이 어느 나라로 인해서 세워진 봉사 단체인지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나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니, 아마 알면 깜짝 놀랄걸?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한번 찾아보지 그래?"

나는 호기심에 들떠 인터넷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몇 분 뒤, 나는 예상 밖의 답을 얻었다.



"뭐? 컴패션이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단체라고?"

나는 굉장히 놀랐다. 컴패션이 IT 강대국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니…. 나는 믿기지 않는 결과에 좀 더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컴패션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미국인 목사님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목격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 게 그 시작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여러 나라 중 처음으로 도움을 주는 원조국이 되어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또 하나의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니 놀라운걸.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KOICA라는 이름의 단체를 알게 되었다.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KOICA는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원조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왠지 모를 뿌듯함에 행복해졌다.

그때 문득,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원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다른 나라들에게 보답을 하는 일이니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원조에 나서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코앞에 닥쳐온 큰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장 앞에서 끌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조금은 먼 미래를 보고 오랫동안 뒤에서 밀어주는 것 또한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갈매기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다 보면 물고기 잡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굶어죽게 된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지구촌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분명 더욱 보람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조국의 입장이 아닌 수혜국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실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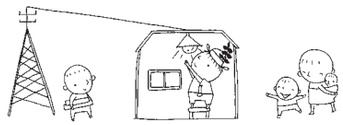
요즘 세계에서는 자기 나라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중 한 국가에 속한다. 비록 어려운 과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을 딛고 발전해 나아왔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많은 도움에 보답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때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비록 아주 작은 도움이 될지라도,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먼 나라의 친구들에게 나눔을 베풀어준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은혜 갚은 까치와 코이카!

이도헌
광릉초등학교



깊고 깊은 광릉 숲에서 크낙새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올해 초여름은 온통 월드컵 소식으로 들썩거렸다.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 깊은 밤에 외친 함성소리는 광릉숲 속의 산새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머나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축구를 안방에서 식구들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형형색색의 국기가 월드컵 경기장을 덮을 때, 경기장 밖에서는 맨발의 어린이들이 먼지를 날리며 다 터진 축구공을 차고 있는 장면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세계기행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요일 저녁이면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러 TV 프로그램들이 나를 흥분시킨다. EBS의 〈세계테마기행〉은 베트남을 비롯한 가보지 못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MBC의 〈단비〉는 아시아, 아프리카 구석진 곳을 누비며 학교를 지어주고, 지하수를 파주고……. 그 무덥고 메마른 땅을 파들어갈 때는 나도 가슴이 꽁닥거리고 맑은 샘물이 높이 솟아날 때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곤 한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용만 아저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궁금해 눈여겨보면, 코이카 단원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코이카! 우리의 코이카 단원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랑으로, 빛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2년간이나 베트남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셨다. 일 년 내내 무덥기만 하는 나라,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들의 행렬, 풍성한 과일과 아름다운 꽃들. 무엇보다도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히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실 때마다 나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꿈과 다짐을 갖곤 한다. 야자나무 이파리로 얼기설기 엮은 집에서도 환히 웃고 사는 저들을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4학년 때이던 제작년에는 중국 쓰촨성의 지진이 나를 놀라게 하더니 올 1월에는 머나먼 나라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져 친구들이 깔려 죽고…. 이번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센 지진은 6.1도였다고 한다. 그 지진으로 인해 지금도 엄청나게 불쌍한 아이들이 셀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집이 다 부서져서 천막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이 천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대통령궁 지붕이 갈라져서 대통령도 피신을 했다고 하니 그 피해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기껏 ARS로 전화 몇 번 누르는 일이 전부였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이카 단원과 연락하여 모기장 보내기 운동에 힘을 보태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조그만 나를 끼워주지도 않으셨다. 나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말이다.





지난해에 나는 어떤 클럽에서 모자를 뜨개질하여서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은 신생아들이 일 년에 40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첫돌도 못 지나 죽은 아이들이 수두룩하단다. 모자를 뜨개질하여 보내는 이유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틈틈이 모자를 떠서 보내셨다니 놀라운 일이다. 사실 그 털모자만 만들어주어도 죽어가는 신생아들 60% 정도가 다행히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 그 작은 정성이 귀한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진즉에 알았다면 뜨개질은 잘 못하지만 엄마에게 배워서 만들어 보냈을 텐데……. 나는 이제야 엄마와 함께 뜨개질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몇 개나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실천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난 6월 25일. TV를 보다가 에티오피아의 한국촌 뉴스를 보게 되었다. 어둡고 좁은 오막살이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 여럿이 모여 가난하게 살아가는 마을.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다시 한국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참전용사의 말을 듣곤 내 머리는 온통 혼란스러웠다. 너무나 멀리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에티오피아. 하지만 아프리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난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겠다니? 나는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찾아보았다.

1인당 GNI 220달러로 참전국 중 최빈국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때 3,518명의 병력을 파견, 121명이 숨지고 536명이 부상했으면서도 단 한 명의 포로가 없었을 만큼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은 74년 공산화가 된 후 수도 아디스아바바 교외 한 귀퉁이에서 고달픈 노후를 보내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20달러라니. 2만 달러인 우리나라와는 차마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나라.

이어지는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KOICA는 2006년 코리아 사파르(한국촌)에 히브레피레 초등학교를 지었다. 컴퓨터 등 현대식 시설과 과학실험 기자재까지 갖춰진 이 학교는 파견된 해외봉사단원의 선진형 학습지도로 현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우수학교가 됐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타개하겠다는 KOICA의 전략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구하기 위해 그 먼 나라에서 달려와 용맹하게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침대에 누워서도 한국을 다시 돕겠다던 그 할아버지도 그 536명의 부상병 중에 한 분인가 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을까? 전쟁의 고통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좌우 앞뒤를 둘러보아도 지금의 나로서는 그들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곤 한다.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서 오직 깍깍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던 불쌍한 까치 가족을 구해준 선비. 하지만 그날 밤 부인 구렁이의 습격을 받고 절벽 위의 종을 세 번 쳐야만 살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세 마리의 까치가 몸을 날려 그 커다란 종을 쳐서 선비를 구했다는 이 이야기. 비록 새이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늘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목숨을 구해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일이 없으니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뭐' 생각해버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에티오피아 부상병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저런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종종 나는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듣곤 한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으니 아이티나 에티오피아처럼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보다. 하지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은혜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옳다고 본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행복하게 키워주셨다.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때론 여행도 같이 가주시고. '그래, 내가 커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고들 하신다.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얼마나 무섭고 삭막한 말인가.

나는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죽어가던, 목말라하던 우리 또래들의 눈망울을 잊지 못한다. 지진으로 부모나 식구들을 잃은 아이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고,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온다. 지진에 무너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먼지를 날리며 먹을 것을 찾는 그 까만 아이의 힘없는 손에 한 병의 생수를 건네준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먼지가 풀풀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뒷골목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아이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신겨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나는 아직 생수 한 병을 갖고 아이티로 갈 수 없다. 내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벗어 남아프리카 골목의 소년, 소녀들에게 신겨줄 기회를 마련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곁에, 아니 그들 곁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앞세우고 활동하는 코이카가 있어 내 마음 든든해지고 힘이 솟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선은 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일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라고 가끔씩 놀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즐겁게 펼쳐냈던 광릉칭찬 페스티벌의 구호처럼 꿈(Dream)과 실력(Power)을 가꾸어 우리 선생님처럼 멋진 코이카의 꿈을 펼쳐내고 싶다.

코이카! 은혜 갚은 까치의 천사들이다. 아름다운 지구촌 꽃동산을 만드는 천사들이다.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두고두고 은혜를 갚으며,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닌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 자랑스러운 일에 이 작은 나도 한몫 동참하고 싶다. 비록 서툴지만 저체온증의 아이들을 위해 모자를 뜨개질하는 내 손끝에서 하나씩 분명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초등부
동상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조하민
인지초등학교



최근에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었다. 그 책에서 한비야는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국제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살 만해진 지금 다른 나라를 돕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가요?"

한비야의 대답은 이랬다.

"수혜국이 원조국으로 바뀐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한비야는 부끄러웠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에 인색한 것은 몇 가지 통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2008년 7억 9,700만 달러로 해외 원조 지원 규모를 늘려왔지만,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은 0.07%로, OECD 국가의 해외 원조 평균 비율 0.2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은 원조는 127억7,630만 달러에 이르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액수는 너무나도 적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후원금을 직접 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갚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초등

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부모님을 따라 대학원 기숙사에서 일 년 동안 살았다. 그곳에서 만난 이희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돈이 없어도 다른 나라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국제협력단원들과 함께 그곳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단다."

베트남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또 베트남에 많이 세워져 있는 한국 공장에 취직하려고 할 때 한국어를 잘하면 취직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이라는 단체에 속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은, 평화봉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과 비슷하다. 도움을 받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다. 내 친구 주영이의 할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다. 나이가 일흔 살이 넘으셨는데, 한국의 병원을 정리하고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일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하셨다. 지금은 그곳에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많이 있다며 강의도 하고 계신다.

꼭 먼 외국에 가야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려운 외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민아, 우리 어머니는 수요일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된 외국인 신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어머니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대. 정말 보람 있다고 하시던데."

옆집에 사는 예은이 언니의 어머니는 멀리 가지 않고도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신다. 이란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망 온 가족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셨다.



이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후원금을 내는 일이다. 나도 어릴 때 명절에 받은 용돈으로 월드비전에 기부를 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운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견을 버리면 좋겠다. 적은 액수라도 규칙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방법도 있고, 나처럼 기회가 있을 때 후원금을 낼 수도 있다.

기부를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나이도 상관없다. 노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내 친구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다. 먼 외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외국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돕는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내가 좀 더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한비야처럼 외국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직접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한비야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이라크 모술에 가서 구호 활동을 지휘했다. 나도 '한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제목이 붙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 일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가진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초등부
동상



모두 함께 잘사는 지구촌

민지원
창영초등학교



몇 해 전 부모님의 권유로 인도에서 일 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영어를 배우러 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보고 느낀 게 많았다. 인도는 여름에는 45도가 넘는 불볕더위로 길 위에 나서기도 힘들며 물이 귀해서 잘 씻지도 못하고 전기가 부족해서 전등도 켤 수 없다. 공항과 도시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도시 부근을 벗어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내가 지내던 푸네만 해도 못 사는 도시가 아닌데 길을 걷다 보면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두 명씩 보였다. 그중에는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도 있었고 몸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아저씨도 있었다.

하루는 학용품과 책들을 사려고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시장 부근으로 간 적이 있었다. 4인 1조로 편성되어 각자 계획을 세워 가기로 했는데, 우리 조는 펜을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 택시비를 줄일 계획으로 반 정도 걸어간 후 택시를 타기로 했다. 처음으로 멀리 걸어가는 것이라 흥분하고 들떴던 것도 잠시,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 본 광경들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대부분 뼈에 가죽만 입힌 그 모습 그대로였고 손목, 발목이 없는 건 예삿일이었으며 다리 하나가 통째로 없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뭐랄까? 벙어리들만 사는 마을이라고 할까? 전혀 활기가 없었다. 어떤 아이는 아픈 듯 드러누워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내 마음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장에 들어서니 남자 아이 3명이 어마어마한 수의 팔찌를 들고 가고 있었다. 나이는 아무리 봐도 14살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렸다. 팔찌를 온 팔에 둘러서 몇백 개는 되어 보이는 팔찌의 무게는 아이들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어쩌면 저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끌고 왔던 고통과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영어를 배우러 바다 건너 인도까지 왔는데 저 아이들은 왜 그리 힘들게 일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까?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좋은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하는 반성이 되었다.



인도에서 일 년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구촌이란 한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구촌 나눔 가족, 100원의 기적' 모금 행사가 있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그동안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13위라는 선진국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지금의 어려운 나라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나눠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에 내가 낸 성금이 나와 비슷한 또래의 어려운 지구촌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국제 개발 협력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탤런트 김혜자 씨를 좋아하



신다. 특히 엄마 책상에는《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꽂혀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책에서 '만일 당신이 전쟁의 위험, 감옥 수감,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감동적이었다. '와와, 나도 그럼 행복한 사람에 속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 내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과 반찬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엄마가 타고 다니시는 낡은 차가 창피하다고 새 차를 사라고 했던 말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어려운 친구들의 상황을 알아야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반 친구 중에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친구가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도 몇 명 있다.

작년에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필리핀을 가본 적이 있다. 필리핀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난했다. 아이들도 바싹 야위었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게에 갔는데 갓난아이를 업은 아줌마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손짓을 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동자만큼은 또랑또랑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했다. 필리핀에 다녀온 후로 다문화 가정인 우리 반 친구가 더욱 정이 가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남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디언 속담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라는 말이 있다. 농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 함께 모내기를 해보아야 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비록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석유 하나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편중되었는가? 이것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협력이란 내가 먼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발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듯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 작년에 돼지 콜레라(HINI)나 수족구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지구촌은 하나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히 든다. 지구촌의 문제는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혼자만 잘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잘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최근 국제사회가 처한 문제이다. 남을 위한 봉사나 협력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일인지 실제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봉사나 협력은 힘들고 나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봉사나 협력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거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커다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같은 국제협력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특히 KOICA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 의료, 기술 지원 등의 사업들은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남의 나라 도움만 받았던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른다.

인도에서의 일 년간의 생활과 필리핀 여행을 통해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국제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 '우리나라만 잘살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살아야 우리나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함께 잘살 수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초등부
장려상



내리도움

손소영
대전서부초등학교



내가 어렸을 때, 교환교수로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잠깐 동안 산적이 있었다. 그곳은 샌디에이고였는데,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였다. 샌디에이고는 멕시코와 매우 가까웠다. 우리 가족은 미국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관광을 많이 갔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국경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에는 여권 검사가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였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긴 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길이 막힐 때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모이듯이, 그곳에서도 자동차 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재주를 보여주거나 동생을 업고 구걸을 하며 25센트를 얻는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에게 25센트를 줬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다. 결국 나중에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고,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곳을 보면서 도와주지 못해 가슴이 많이 아팠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 봤는데, 국경 하나 넘어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빈부격차가 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 이후로는 물건을 낭비하거나 음식물을 남겨서 버릴 때마다 구걸하던 불쌍한 아이들이 생각이 났다.

부모님께 우리나라는 잘사는데 왜 멕시코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지 궁금하다고 여쭈어보았더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난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 주셨다. 예를 들어 6.25전쟁 전쟁 때 미군들에게 아이들이 "기브 미 초코렛." 이라고 하며 구걸을 했다고 하셨다. 그때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이 식량을 대주어서 배고픔을 면했다고 하셨다. 엄마가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가난했냐고 여쭈어보았더니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지 못했고,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살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다. 그 주인공 소년이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다.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며 돕기 마련이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라고 한다.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전에 윗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Pay it Forward의 정신을 '내리도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나라들에



게 그 도움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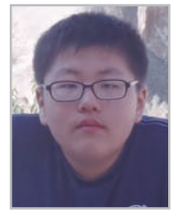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의 지구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들이 없다면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것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노동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려운 작업들을 대신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잘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엇하러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를 돕느냐고 반대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가를 따지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식량만 공급해주는 식의 도움이 많았지만 요즘의 기부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거나, 오리를 키우게 해주는 식으로 스스로 일을 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는 무심하게 물품만 쥐여주지 않고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혼자서 일해나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기부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UN 사무총장이 있는 나라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살아서 부러운 부자나라 한국'보다는 '아름답고 닮고 싶은 나라 한국'으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

초등부
장려상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시작해보자



류영우
서동초등학교



2010년 새해 들어 우리 가족은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우리는 집에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차에 올랐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 아빠께서 갑자기 "새해도 되었고 하니 올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게 있을 거야. 가족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셨다. 갑작스런 질문에 조금 당황을 했지만, 아빠께서 먼저 새해 소망을 말씀하셨다.

아빠의 새해 소망은 내 예상을 한참 빗나갔다. 내 딴에는 당연히 '술을 끊겠다라든가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소망은 어떤 형식으로든 해외의 어려운 아동들을 돕겠다는 거였다. 옆에 앉아 계신 엄마께서도 거드셨다. 엄마께서 아빠 의견에 찬성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산다고 다른 나라 사람까지 도와주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세계화를 외치는 나라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일이 옳다는 걸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천이 되었을 때 옳은 일이 되는 거라고 덧붙이셨다.

아빠께서는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결식아동을 후원하거나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 갑자기 작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 떠올랐다. 형과 나는 방학을 해서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아침부터 물놀이 용구와 간식 등을 챙기시기에 가족 나들이를 가는 줄 알고 좋아했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위한 놀이 준비가 아니라 결연아동들과의 물놀이 준비였다. 갑자기 맥이 빠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에 아빠께서 돌아오셨는데도 내 입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서운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빠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낮에 결연아동과의 물놀이 중에 일어난 이야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물놀이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결연 맺은 아이들에게 "뭘 먹는 게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컵라면을 먹겠다고 했다는 거였다. 아빠께서는 혹시 아이들이 미안한 마음에서 그러는가 싶어서 오랜만에 외출했는데 컵라면 말고 다른 맛있는 걸 먹자고 설득하셨다. 그러나 아이들 입에서는 "저희는 컵라면이 좋아요. 매일 먹던 걸 먹어야지 안 먹던 것 먹으면 오히려 속이 안 좋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말을 듣다가 놀란 형과 나는 식탁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 식탁은 너무 화려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역시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엄마는 작년부터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계신다. 엄마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해미에 사시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오신 당숙모 때문이었다. 한국말이 서툰 당숙모가 한국에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시면서부터이다. 당숙 내외분에게는 나에게는 촌수로 아저씨가 되는 수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가끔 엄마와 당숙 댁에 가면 시골이라 아이들이 없는데, 나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녀석이 귀엽다. 우리 당숙모는 한국에 오신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셔서 알림장을 읽고 준비물을 챙기는 건 당숙께서 하시는 편이다. 엄마께서는 형과 나에게 자주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단지 우리와 같지 않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은 베트남 어머니를 둔 여자 아이였다. 그 아이는 수학도 잘하고 음악이나 체육도 좋아했지만 국어 받아쓰기는 너무 어려워했다. 그때는 그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가 간다. 우리 아저씨 수환이도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꿈은 외교관이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내 꿈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외국 사이트와 잡지사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내 생각에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일은 나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인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이나 편지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나 역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면 정말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최근에 잦았던 지구촌의 대지진들은 내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태평양연안이나 지중해 등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 이외에도 세계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아이티 대지진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은 고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입양도 잘 안된다고 한다. 아이들이 먹는다는 진흙비스킷은 감히 나로서는 꿈속에서도 상상을 못할 일이다. 하지만 나는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감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할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벽에 있던 흙을 드셔보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산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디 그뿐인가. 에티오피아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분뇨나 폐수가 마구 섞인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물을 마시기까지 한다고 한다. 왜 똑같이 태어나서 누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이 문제는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한 숙제이다.

아빠께서 새해에 다짐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커다랗고 예쁜 저금 통 두 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아빠와 엄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형과 내가 용돈을 절약하여 수시로 저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저금통을 거실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놓아두었다. 아빠와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축하는 걸 깜빡하시면 벌금이 있고 나와 형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나 뺏기게 되는 벌칙이 있다. 물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벌칙은 책을 못 읽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을 돕고 더 나아가 세계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은 지구촌 시대에 사는 세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커서 꼭 내가 꿈꾸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얻은 지식은 지구촌을 돕는 일에 쓰고 싶다. 지식은 갖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나누고 실천하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시작해보자.

초등부
장려상



캄보디아의 바리공주

이소윤
부천부곡초등학교



"아버님께 하루 저녁 신세지고, 어머님 배 속에서 열 달 피를 받아 세상에 나왔으니 그 은공을 받겠나이다."

우리나라 설화 바리공주의 한 부분이다.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버려졌다. 하지만 비리 공덕 할아버지와 비리 공덕 할머니를 만나 그 보살핌으로 건강하고 영리하게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승세계로 가서 약초와 약수를 구해 아버지를 살리게 된다. 사람들은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살린다는 점에서 바리공주를 영웅으로 여긴다. 그런데 바리공주를 수양딸로 정성스럽게 키운 비리 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었다면 바리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바리공주는 자신의 부모를 평생 원망하며 삐뚤어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기 또 다른 바리공주가 있다. 바로 캄보디아 아이들이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에서 양치질, 설거지는 물론, 용변을 보고 심지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 해에 6,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또 5세 미만의 아이 중 20%는 설사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47%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비리 공덕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





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유니세프, 월드비전, 그리고 우리 반 등이다.

'나눔과 배려를 아는 참 지혜둥이'가 교훈인 우리 반은 캄보디아처럼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비리 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캄보디아 우물 만들기 저금통,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일기를 적는 '나눔 일기', 국어 시간에 했던 '나눔 연극', 미술 시간에 진행된 '나눔 판화' 등 1학기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나눔 경매였다.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물건을 제출하고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산다. 하지만 그 돈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된다. 물건도 구입하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나눔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나눔 경매. 우리 반이 나눔 경매를 해서 기부한 돈은 무려 7만원 정도가 되었다. 우리 반이 조금씩 낸 물건으로 7만원이란 돈을 기부하게 되었다니 정말 신기하였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지혜둥이 우물을 만들자.' 라는 카페 콩 저금통. 우리 반 카페에 글을 올려서 받은 콩을 모으는 카페 저금통이다. 이 밖에 저금통에 모인 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돈은 모두 이 온라인 저금통에 모여지고 우리는 그 모금 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우물을 만들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나눔이 모여 캄보디아의 바리공주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 싶다.

두 번째 비리 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국국제협력단이다. 담임선생님께서는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견학이었다. 미리 내가 가볼 곳을 조사해보니 한국국제협력단이 하는 나눔 활동은 우리 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는 정부기관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비정부기구와는 다르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학교 설립 지원과 교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 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 또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 전수,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을 위해 농촌 지역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또 아직까지 여성의 권익이 없는 나라에 권익이 향상될 수 있게 지원도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견학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시설도 좋았고 우리 세금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그리 큰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즐거웠던 수업이 끝나고, 우리 반은 지구촌 체험관으로 가서 몽골 볶음 국수인 '쵸이방'과 몽골 만두인 '호쇼르'를 먹었다. 쵸이방과 호쇼르 모두 몽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가 들어 있어 냄새와 맛 모두 느끼했다. 내 입맛에 잘 맞지 않아 조금밖에 먹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직접 느끼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한국국제협력단이 비리 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리공주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자상함과 할머니의 따뜻함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우리 반에서 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만 앞세우는 나눔 활동이 아닌 실천하는 비리 공덕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

비록 지금은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이다음에 커서 나의 꿈인 아나운서가 되면 바리공주 같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꿈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우리들의 나눔 활동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바리공주처럼 건강하고 영리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그려보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초등부 장려상

더불어 사는 지구촌



손유나
대전내동초등학교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으며,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어야 했었다.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해외원조 덕분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있을 당시에 미국, 인도, 에티오피아, 벨기에, 콜롬비아, 터키, 프랑스 등 총 22개국이 군사적·의료적·시설 설립 면에서 많은 원조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가 부쩍 성장해 지금은 떳떳하게 다른 빈곤국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조국이 되어 OECD 국가 중 개발원조위원회에도 24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해외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인 만큼 저개발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다른 나라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현재 해외원조의 현황과 우리가 왜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해외원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우리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튀니지라는 나라에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과 더불어 코르크참나무숲 지속가능 개발사업, 패류양식 기술이전 사업 등 경제적인 원조뿐만이 아닌 기술과 그 나라의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등의 여러 방면에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세네갈 등의 나라에 농사에 필요한 땅을 조성해주면서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의 지원 방법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다.

셋째,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식량이나 텐트, 콜레라, 홍역 예방 백신 등 긴급구호물품을 공급·지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현재 해외원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는 또 다른 원조 공여국들을 만들어 다른 많은 빈곤국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원래 수혜국으로서 많은 나라에게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의 원조국이라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주어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그 나라는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은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처럼 비록 다른 민족이더라도 지구촌이라 불리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같은 사람이지만 각 나라의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서 빈곤국들은 먹을 물조차 없이 쪼들려 살고, 선진국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더 편한 삶을 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것이라도 다른 빈곤국들에 나누어준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이 되어 있는 북한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을 구매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적인 면으로는 남한에서 관광단 109명이 2000년 9월에 백두산을 관광하였고 2001년 3월에는 북한의 관광단이 한라산을 관광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천안함 사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북한에 가 있었던 개성공단이 철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나라는 현재 식수, 식량 또는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선진국들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많은 빈곤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 다시 서로 교류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 그리고 저개발국가들에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ogether

초등부
장려상



사랑의 씨앗

장석주
하중초등학교



우리 엄마는 집 근처에 있는 땅을 빌려서 주말농장을 하신다. 올해 우리 엄마는 내 손보다 큰 호박과 동글동글한 방울토마토와 주먹만 한 토마토를 따 오셔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엄마는 깻잎처럼 생긴 깨도 심고, 열무, 딸기도 많이 심으셨다. 그리고 고추도 정성껏 가꾸어서 고추나무가 쑥쑥 자라서 지금은 고추밭에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다.

엄마는 나와 동생을 데리고 주말농장에 자주 찾아간다. 밭은 우리 아파트 후문 쪽으로 나가면 논과 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다. 며칠 전에는 크게 자란 빨간 고추도 따고 딸기도 땄다. 딸기를 많이 먹으려 했지만 딸기는 썩은 것도 있어서 못 먹었다.

정성껏 씨앗을 심고 가꾸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생긴다. 그것을 한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 혼자 기쁘겠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먹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게 된다. 그래서 씨앗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우리 엄마는 잘 자란 감자, 호박, 고추, 상추를 따서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신다. 그리고 상추를 엄청 많이 따서 내가 다니는 공부방 선생님께 갖다 드리기도 한다.

"방금 따온 거예요."

하면서 이웃집에도 갖다 드린다. 나도 가끔 심부름을 하는데 그러면 옆집 아주머니는 기분 좋아 하신다.

"응, 잘 먹을게."

이때는 내 마음도 기뻤다. 우리 엄마는 늘 이런 말을 듣는다. 그때 난 우리 엄마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우리 엄마는 씨앗 하나로 큰일을 하신 것 같다.



우리 엄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처럼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 우리에게 쌀을 주시는 농부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다. 코이카에서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많은 건물과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한다. 코이카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중동 등 아주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았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나라의 환경을 보면 건물은 붕괴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쳐서 안쓰러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사는 나라를 위해 없는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심어준다. 만약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면 세계는 모두 함께 행복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남을 위하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쳐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자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이 있지만 가난한 나라는 물 한 모금조차 먹기가 힘들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때 아이티에 가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대신 텐트를 지어주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티에서는 몇 달 전 7.2의 강진이 일어나 건물이 모두 부서지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다. 그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코이카가 도와주는 것을 보고 기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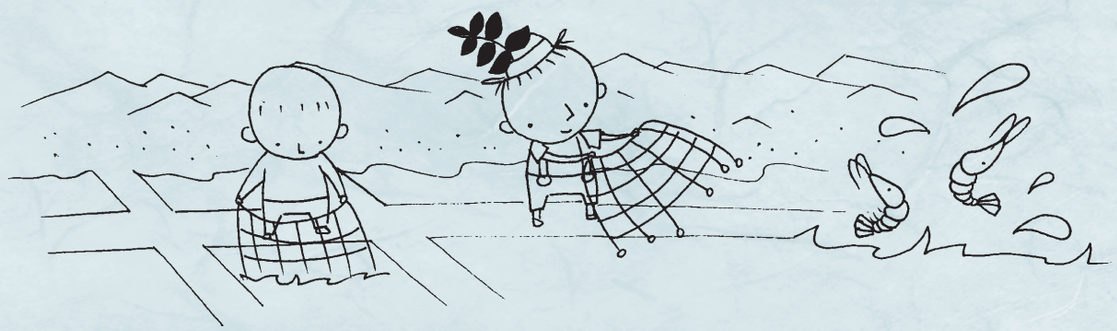
텔레비전 〈단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는데 집이 무너져 없는 사람들에게 텐트 60단지를 만들어서 아이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 안에는 침대 1개와 찌그러진 냄비, 더러운 카펫이 있었다. 그때는 아이티 사람들이 기쁘게 보이니까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텐트 하나 가지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코이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작은 일이어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코이카에 들어가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는 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중등부



중등부
대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예진
금옥중학교



"저기 서 있는 친구가 어기야."

아빠가 가리키신 창가에는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긴 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작은 친구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빠르게 말했다.

"안녕? 난 예진이야. 만나서 반가워!"

"으응, 난…… 어드게렐…… 어기……."

그 아이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몹시 수줍어하며 겨우 이름을 말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어른들이 나가고 우리는 컴퓨터실에서 게임도 하고, 태권도 배움터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한국어 배우는 교실에 들어가 칠판에 그림도 그리면서 재미있게 지냈다.

그 아이는 귀가 없는 아이였다.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밋밋하게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귀가 없는 병을 앓고 있었다. 어기의 언니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어기네 엄마는 두 딸에게 귀를 만들어주기 위해 몽골을 떠나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셨다. 돈을 벌어 의술이 발달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시다가 밀린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묻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찾아오셨던 것이다. 그때 어기가 엄마를 따라왔는데 상담하시던 아빠가 어기의 모습을 보고 어기의 엄마와 똑같은 바람을 갖게 되셨다. 아빠는 어기에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주셨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식량으로 목숨을 이어나갔다고 하시며, 공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많아 담을 넘는 가지처럼 기쁨을 나눠주는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치과병원을 하셨던 할아버지 역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소년의집 사람들의 이를 진료해주시며 긴 세월 동안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 조용히 돕는 삶을 사셨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아픔과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우뚝 일어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우선은 우리 민족의 삶을 향한 투지와 용기와 부지런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들이다. 물론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었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목숨을 지키고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 해외로부터 전해진 도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기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더욱이 여럿이 함께 잡아준다면 한 사람이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굶주릴 때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고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쟁이나 천재지변, 전염병과 기아 등 큰 어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나라들을 돕는 일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존경스러웠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었다.

그 이후 어기는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엉덩이에서 살을 떼어다가 만든, 그렇게도 원하던 평범한 귓바퀴를 갖게 되었다. 물론 어기의 언니는 어기와 달리 나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하여 가짜 귓바퀴를 달게 되었다.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는데, 코가 조금 더 높으면 좋겠는데, 눈 밑의 점만 없다면 좋겠는데, 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거울을 보며 해보던 생각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각들인지 어기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진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잘생기고 못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없거나 주변의 시선이 평생 아픔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어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망설였던 마음도 사라졌고, 어기 역시 머리카락으로 애써 귀 부분을 가리지 않아서 좋았다. 엄마는 나보다 몸집이 작은 어기를 위해 내가 입던 옷들 중 작은 것들을 골라 챙기셨고, 어기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그 헌옷들을 받아들었다. 나이는 같은데, 결국 어기는 내 동생처럼 되었다. 언니 옷을 물려 입으면서 불평으로 입을 쭉 내밀던 나와는 달리 착한 아이였다.

어기도 나처럼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것이다. 어기도 나와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귀를 선물로 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중에 커서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는 꿈을 꿀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과학 중에 생물과 물질 반응 분야가 제일 재미있다. 과학자가 되어 세계에 퍼진 에이즈와 같은, 지금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꾼다. 눈 먼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주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가 되어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배움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훌륭한 사람, 음식이 없고 물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른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시원한 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꿈이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그런 꿈을 꾸며 그렇게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중등부
금상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각오와 자세



박진하
죽전중학교



동생이 한 명 더 생길 예정이다.



아프리카의 소년병, 소녀병 그리고 페루의 빈민촌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정한 일이다. 내전이 한창인 아프리카에서는, 내 동생 나이의 아이들이 연필이 아닌 총을 잡고 사람들에게 겨누고 있다. 과거에 이런 소녀병이었던, 나보다 겨우 두세 살 나이 많은 여자는 벌써 두 아이의 어머니가 돼 있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그 후에 나온 난민촌 텐트 안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다. 굶고 병든 아이 중에는 숨 쉴 기력조차 없는 아이도 있었으며,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여인은 취재진에게, 차라리 한국으로 데려가서 키워달라는,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다고. 또한 우리에게 아주 흔하디흔한 약품이 거기선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이었다. 병도 아닌 설사로 죽어가고 있던 아이들이 뇌리에서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페루의 빈민촌은 자국민도 포기한 곳이라고 했다. 강 위에 지은 화장실에서 휴지도 없이 볼일을 보고, 그 물에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쓰레기와 온갖 오물이 사방에 널려 있었



고, 아이들은 맨발로 그곳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었다. 내 코에 그 악취가 느껴질 정도였고, 원인 모를 병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 못해 분하기까지 했다.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어렵고 비참한 변화를 많이 겪었지만, 도움이 있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특히 6.25전쟁 때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었고, 그 도움을 발판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중학교 3학년이다.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꿈 중의 하나였다. 아름다운 지구촌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소년병, 소녀병을 보고, 페루의 빈민촌을 보고 나서 그 꿈에 한 가지가 더 보태어졌다.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건 정말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경험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그도 모자라 부모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 꿈이란 그냥 '모두가 잘사는 지구촌 만들기'이다. 하지만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와





의 차이는 아직 너무나 크다. 흑백의 그림 같은, 깊고도 깊은 그 차이를 좁히려면, 그 해결 방법은 '나누기'가 될 것이다. 나누어야 한다. 지식, 정보, 옷, 음식, 돈 등. 개인만의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그들에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먼 이국 땅 분들처럼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도움을 베풀 때이다.

나누자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설사병을 앓고 있던 아이가 3일 만에 죽었다는 소리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던 아이들의 소리를 내 맘속에 새기면서 후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내 꿈을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별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다.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한 가족, '지구촌 가족'이기에 오늘도 난 내 꿈을 키워가고 있다.

동생이 한 명 더 생길 예정이다.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매달 내 용돈으로 한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에 한 명 더 생긴 동생의 신상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이다. 지금은 내 용돈으로 오직 한 아이만 도울 수 있지만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손길이 뻗칠 날을 그려본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세계를 소망하면서…….

중등부
후원기업상



소다 가이치와 사랑의 역전극

홍윤기
한영중학교



소나기가 흠뻑 내려 초록이 가득한 6월 토요일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역사 속 시간여행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뜻깊은 선물로 계획하신 일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를 통해 구한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선교사님들 이야기에 대해 흥미가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사 책 읽기가 내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다.

선교사 묘원에 도착하니 우리 가족은 묘원 안내를 해주시는 분을 만났고 나는 시간여행을 한다는 설렘에 무척 흥분이 되었다. 그곳에서 내가 책에서 만났던 존경하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기뻤으며 아는 일화들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니 더 흥미로웠고 칭찬도 많이 듣게 되어 으쓱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리를 옮기며 설명을 듣던 중 나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선교사 한 분이 묻혀 있었다. 바로 일본인 '소다 가이치'였다.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솔직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지금도 독도 이야기, 교과서 왜곡, 정신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를 보다 말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언성을 높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도 원망이 많았었다.

그런데 소다 가이치 부부는 1921년부터 무려 45년까지 우리나라 고아를 위해 삶을 바쳤다



고 하였다. 그 시기는 우리 민족이 가장 괴롭힘을 당한 일제 강점기가 한창인 때이다. 나로서는 이러한 시기에 절대 강자인 일본인이 절대 약자인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고자 일생을 바쳤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았다. 과연 사실일까?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님들만 떠올리면서 이곳으로 발길을 옮긴 나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고 나도 모르게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소다 가이치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자 바짝 다가갔다. 도대체 무엇이 '소다 가이치'에게 그 수많은 시선들을 감수하고 편견과 억압의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힘을 주었을까?

그는 방황하던 젊은 시절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무명의 한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밥값도 내어주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에겐 은인의 나라라곤 하나 당시 모든 일본인이 무시하고 억압한 철저한 약자였던 한국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그후 고아를 1,000여 명이나 돌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로부터 감사와 찬사도 들었지만 간사한 일제의 간첩이라는 비방도 함께 감수해야만 했다고 한다. 언젠가는 소다의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소다가 취조를 당해 거짓 위선자라고 비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후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세계평화, 역사에 대한 반성을 위해 힘을 쏟으셨다고 한다.

역사 속 시간여행을 하러 갔던 양화진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소다 가이치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꾸 생각할수록 내 모습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내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많은 고정관념들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모든 일본인들이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시절에 고마움과 사랑을 품었던 사람, 고마움을 일생을 통해 실천하고자 낮은 자리를 택하여 반일 감정을 묵묵히 한몸에 받았던 사람, 우리도 돌아보지 않았던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준 사람, 패망한 조국의 잘못을 함께 반성하자고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 철저한 약자에게 베푼 사랑. 내 생각의 틀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곳에 묻혀 있다.

나는 줄곧 소다 가이치에 대한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에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새터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 중 현재는 빈곤국가가 되어버린 나라들, 더 나아가 텔레비전에서 줄곧 보았던 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떠올렸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내가 해온 일은 진심이 부족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시고자 내이름으로 월드비전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셨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기부였기에 때때로 내이름으로 오는 작은 책자들만 아무 생각없이 구경하는 때가 많았다.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봉사활동이란 것을 해본 것 같다.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있는 노인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았다. 원래 중학생은 받지 않는데 워낙 자원봉사할 사람이 부족하여 갈 수 있었다. 호기심과 각오로 다진 마음의 준비는 어느덧 사라졌고 그날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둘이서 50인분의 반찬을 하고 도시락을 쌌다. 6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다. 아마 내가 평생 할 부엌 일을 다 해본 것 같았다. 음식 준비를 겨우 마친 후 나는 직접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음식을 대접하였다. 물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구운 생선크기가 작다고 내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다. 순간 너무 서운하고 언짢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람도 느꼈지만 누군가를 마음을 담아 꾸준히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실망감도 함께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나는 텔레비전에서 개발도상국을 다니면서 봉사하는 방송을 보면서 감히 나도 저렇게 해보리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었다.

그런 내게 양화진의 경험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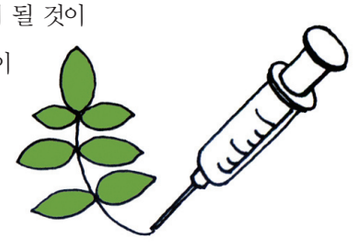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부 계획을 세워보고 그중에서 꼭 몇 가지라도 올해 안에 실천해보고 싶다. 현재 나는 중학교 관악반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하고 있다. 선생님과 관악부 친구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돕기를 위한 관악반의 자선연주회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구청에서 매월 여는 벼룩시장에 나가 기부금을 직접 마련해보고 싶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봉사하러 갔던 노인 무료 급식 시설에 가서 도시락 봉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 시골 친할머님이 보내주신 김치 한 통도 들고 가야겠다. 또한 내가 다 읽은 동화책들을 모아 근처 나섬교회 몽골 국제학교에도 보내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 이번 여름방학이 참으로 기다려진다.

이렇게 양화진에 다녀오고 얼마 후 나는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청을 찾아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국제협력단을 통해 파나마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온 공익 형을 소개받아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회가 온다면 청소년 시절에 소다 가이치의 체험과 봉사를 온몸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의 원래 꿈은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사이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국제구호단체에서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 노동력 착취, 가난,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상처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여 내 꿈을 진정으로 완성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화진에 묻히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값없이 준 사랑과 꿈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고이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다. 우선 나부터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약자를 위한 소다 가이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약자는 한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 미움이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예전 우리가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은 채 강자의 모습이 되어 괴롭히고 있는 약자일 수도 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게 바로 소다 가이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의 역전극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역전극의 주인공이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이 사랑의 역전극에 내 인생이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한다.



중등부
은상



난망지은(難忘之恩)

김경민
서울창일중학교



'Global', 최근 들어 떠오르는 키워드다. 학원에서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체계를 도입하고 외고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조직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글로벌화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화되는 것이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곳 한국에서 지구 반바퀴 떨어진 우루과이까지 전화를 거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고, 비행기로 반나절을 가야 하는 지구의 척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뼈대가 휘청거리는 이 모든 현상, 이것은 바로 지구라는 행성이 마치 땅속 뻗어져 있는 뿌리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지구촌 사회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타국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한 단면이다.

이렇듯 과학,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달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서로 점점 밀접해가며 긴밀히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주도권은 강대국들에게 넘어가고 그들 임의로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약소국들의 허덕임은 심해져만 간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구 한쪽에서는 지나친 영양섭취로 비만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를 줄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날로 심해져 가는 양극화 문제는 과연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100원씩 걷어 아프리카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빌 게이츠나 카를로스 슬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Top 5'에 드는 유명인들이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에 학교를 지어주면 되는 문제일까. 과연 모든 나라가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은 후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부정부패에 찌든 빈곤국가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에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리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취업이나 이민 등을 통해 돈을 벌고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잘사는 나라도 가난한 나라를 딛고 잘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빈곤에 허덕이고 부패가 만연하여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있었지만 교육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이를 극복했다. 실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 척박한 땅, 기후 등 자연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빈곤한 경우가 더 많다. 가난과 기아는 가난한 자의 몫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노력, 능력 부족을 탓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그 아픔을 겪어본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다.

단기간의 원조나 일부 국가와 단체의 도움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그들 또한 달라질 것이다. 한비야의《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이 애타게 외친 말이 있다. 거저 주는 식량은 더 이상 받기 부끄럽다고, 한 번만 씨앗을 주면 제 힘으로 농사



지어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게 훨씬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들은 강대국의 도움에만 의존하여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떳떳함을 누리고 싶다고 말한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의 힘을 보태준다면 제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는 개인의 정기 후원금을 모아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통한 소득 증대, 보건의료 사업, 식수 사업 등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무료로 구호한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도 슈퍼 옥수수를 발명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다. 개인의 작은 행동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문화를 존중하기, 외국인 노동자 배려하기 등 열린 사고를 갖기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1980년대에만 해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700조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았으나 1990년 원조를 거절하고 오히려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IMF의 국가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완전히 파괴된 서울을 보며 앞으로 100년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0년 세계경제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맥아더 장군의 말처럼 아직까지 가난에 허덕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많은 나라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입었던 난망지은(難忘之恩)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다. 한국에서 일 년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85조 원이고 이 돈으로는 아프리카 기아 500만 명을 약 27년 동안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조금만 신경 쓰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가난한 그들에게도 새 출발이라는 희망의 끈은 있다. 물질적 가난을 벗어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쁨과 행복의 결여로 만들어진 정신적 가난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더위를 견딜 집이 없어도, 자신의 부모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부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라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중등부
동상

Dear My Friend from Another World



이혜민
웅산여자중학교



꾸띠안! 안녕. 오랜만에 편지함에 서운해하지 말고 내 꿈을 들어줄래? 우리 반은 특별한 짝지가 결성되었어. 서로의 임무가 있는 짝지. 가르침을 줘서 성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는 '나'와 '너'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나의 짝지, 바로 멘토와 멘티로 이뤄진 다정이란 친구.

정원 34명의 2-7반 교실은 매우 다양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 부러움을 사는 반면, 방법을 찾지 못해 뒤에서 헤매는 아이도 있거든. 똑같은 수업을 받지만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더 따라가지 못해. 마치 점점 더 잘사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더 가난해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을 같은 방에 순서 없이 붙여둔 것처럼…….

1등부터 17등까지는 멘토를 맡고 18등부터 34등까지는 멘티가 되어 짝지를 이루고 멘토는 멘티를 가르치며 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해. 반에서 상위권인 나는 다정이란 친구의 멘토를 맡았어. 그런데 이 얼마나 어이없는 강제 노동이란 말이야? 나도 나보다 아는 게 많은 선생님 같은 아이에게 수학 공식을 묻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내어 한 등수라도 올리고 싶고 시험 기간이 임박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나를 위해, 나의 중요한 기말고사 공부를 위해 교과를 보충하는 게 당연한데…… 멘토라니. 불공평하게 내 시간을, 내 짝지에게, 공짜 과외를 시켜줘야 하는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정한 멘티는 조용해서 나에게 질문을 할 것 같지 않은 다정이란 친구로 정했어. 이기적이지만 물어보지 않으니 나는 별 책임감 없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거든. 그런데 이 활동을 아이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예상을 뒤엎고 선생님께서 말한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강제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보였어. 그걸 몇 주 바라보다 보니 나는 초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 다정이와 쉬는 시간마다 앉아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어. 나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학생이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중요한 부분은 더 꼼꼼히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꺼내어 내 짝지에게 주었고 암기 과목에서는 외우기 쉽게, 하지만 부끄러워 나만이 알고 있던 암기 노래와 전략들을 가르쳤어. 어느 새 시험 임박 2주 동안 나는 멘티를 어떻게든 공부시켜 이해시키겠다는 멘토로 변해 있었고 내 머릿속에 담겨 있던 내 공부 지식은 다정이에게 뱉어냄으로써 더욱 그 자리가 확고해져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나봐.

꾸띠안! 기뻐해줘. 며칠 후 치른 시험 결과는 아주 환상적이었거든. 중하위권이었던 나의 멘티 다정이가 평균 17점이 상승했어. 전교 석차는 97등이나 올랐어. 상위권이 된 거야. 하지만 변화는 다정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다정이에게 내가 한 공부 방법을 말로 뱉어내면서 한 번 더 공부한 나도 전교 20등에서 10등까지 오르는 쾌재를 맛보았어. 신기하지? 처음 바보같아 보였던 멘토와 멘티가 도움을 받는 쪽뿐만 아니라 주는 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발전한다는 걸.

꾸띠안, 나는 이번 멘토와 멘티 활동을 통해 '나눔'을 알게 되었어. 나눔이야말로 나와 너, 우리의 발전이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나눔이 실현된다면 나라들 또한 서로가 잘사는 나라들로 될 수 있겠구나. 다정이와 나.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공부 잘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나눔이 성공하였던 거야. 모든 나라들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고 싶기 때문에 나눔이 성공될 것이야. '나'의 지식 나눔의 행동이 다정이와 나의 성적 향상으로, 반 평균 향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쁨으로, 그럼으로 인한 나의 보람과 기쁨으로, 이것이 반 전체 아이들의 모범으로, 그래서 반 아이들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지. 이처럼 어떤 사람이 좀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면 즉 자신의 길과 기회를 조금만 나눠준다면 세계 곳곳의 글로벌 인재들을 발견하여 모든 나라가 발전할 거야.

꾸띠안, 내 꿈은 선생님이야. 뜬금없지만 나는 단순히 지식을 꺼내기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건 나눔이고 그걸 믿기에 내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줄 생각이야. 너희는 모두 다 소중하고 너희가 소중한 만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소중하니 네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꾸띠안! 난 내 학생들이 커서 내게 받은 나눔으로 지구촌 발전에 한몫을 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 아래의 조그만 지방 양산에서 나같이 평범한 소녀에게 멋진 꿈을 가지게 해주었지 않았을까?

꾸띠안, 난 지금부터 많은 것을 해볼 생각이야. 같은 동에 사는 베트남 이웃에게 한글을 가르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가르쳐줄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해봐야지. 한비야처럼 미지의 나라에 가서 사람들 사는 맛을 느끼는 것도 멋질 거야. 그러면 너처럼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 내 도움에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만날 테지. 꾸띠안! 그쯤 되면 너도 네 친구들에게 자랑해줄래? 대한민국에 사는 내 친구는 나눔을 실천해서 모든 나라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아이라고, 그래서 나도 내 친구처럼 하고 싶다고, 우리들도 같이 해보자고.

꾸띠안, 난 아직 어린 나를 잘 몰라. 그래서 이 나눔이 내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 모든 나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실천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마음을 꼭 알아줄 거야. 빨리 후진국, 선진국, 못 사는 나라 없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치? 꾸띠안. 다음에 또 편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너도 나처럼 네가 하는 행동으로 보람 있는 생활을 하기를 빌게. 너도 그런 너의 행동을 나에게 꼭 말해줘. 우리의 나눔으로 나라들이 다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안녕.

중등부
동상



좋은 파트너, 대한민국!

임경빈
대전만년중학교



"아버지! 왜 우리가 외국의 불쌍한 국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양로원 어르신들의 마음 아픈 처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푸념 섞인 말로 여쭈었다.

"아들아! 이제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야. 물론 우리 주변에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하지만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어려움과 고통, 고민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란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며 시대적 사명이지."

"아들도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경제 성장은 외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단다. 우리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한반도의 경제 기반은 최악이었지.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 우리의 경제 규모는 지구촌에서 가장 낙후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 만약 외국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경제 수준은 최악을 벗어나지 못해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도움과 우리의 노력을 더해서 빈곤 퇴치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

"우리의 이런 성공 이야기가 빈곤에서 허덕이고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어 자신감을 되찾게 하여 하면 된다는 꿈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도움을 준다면 가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지원하였던 방법은 경제 계획을 짜주고 경제 계획에 맞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도국을 도와왔지. 하지만 개도국의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어.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원조를 받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이 지원한 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지 않고 정부 관리들이 제멋대로 사용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빈부의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개도국의 국민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

"원조에 참가한 선진국들은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 없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할지 몰랐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먹이만 받아먹는 종속 관계를 만들어 개도국은 기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사회 갈등만 더 키웠어."





"하지만 우리는 가난 극복의 충분한 경험으로 눈부신 경제성과 IMF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들을 살려 지구촌에서 가장 뒤떨어진 국가에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혼을 심어 돈으로 해결하기보다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고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지구촌 전체가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역할이 아닐까?"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 개도국을 도와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을 한다.

우리의 국가 발전을 뒤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최빈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쟁취한 놀라운 경험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빈곤에서 허덕이는 나라,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진다.

이런 뿌듯함을 안고 우리는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도와준 기억을 되살려 선진국들의 노하우와 우리가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아직도 빈곤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 효과적인 원조를 통해 개도국에게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서 개도국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책을 찾아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피와 땀이 서린 도움으로 지구촌 전체가 크게 발전하고 전쟁과 분쟁이 없는 행복한 지구촌 건설만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원조 국가로 변모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우리에게 함께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으로 건국 이래 지구촌의 대소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조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러움과 우아함으로 변한 지 오래이다.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은 역사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쾌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피와 땀으로 축적해온 대한민국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이미지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과 왜곡 보도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겨나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원조국으로 변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 우리의 원조는 이런 면에서 국가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실천하는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원국에 대한 문화와 환경을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개도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맞이한다면 결과는 실패일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 어린 정성을 쏟아야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따르려는 마음이 생겨나 고마움을 알고 대한민국의 진심을 받아들여 지구촌의 행복이 구축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지구촌의 다양한 생각과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특유의 가치와 해결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맞춰서 국제사회의 좋은 파트너로 대한민국 특유의 가치와 열정, 도전과 혁신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도국에게 전수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다져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대한 꿈을 꾸자.

그리고 우리가 원조국으로 원조 받는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베푼다는 생각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밀린 숙제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지구촌 건설이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중등부
동상



희망 농장의 농부가 되어보실래요?

박하람
동명여자중학교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자원봉사를 떠나게 되었다. 난 그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거창한 문구에 휩쓸려 인도네시아라는 미지의 땅을 밟게 되었다. 지금은 그곳의 마을 이름도, 봉사하러 갔었던 유치원의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딱 한 가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꼬마 친구 '리즈키(Lizki)'와 함께했던 기억이다. 내 무릎에 앉아 매번 장난을 걸던 개구쟁이는 사탕 먹기 게임을 할 때, 입 주위에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 사탕을 먹고서는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작은 혓바닥 위에 올려진 사탕을 보여주며 나의 약을 올렸다. 또 리즈키에게 기다란 풍선으로 멋진 칼을 만들어주었는데, 용감한 장군인 척 풍선 칼을 들고 나에게 덤비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 우리가 나누어준 치킨을 먹으며 나에게 "먹고 싶지?" 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리즈키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준 아이였다.

나에게 '어린이 선교'라는 새로운 꿈을 심어준 리즈키가 지금 얼마나 컸을지, 과연 날 기억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 아이가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어느덧 인도네시아에 갔다 온 지 3년이 흐른 그해의 마지막 달에 나는 울산 KBS홀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은 바로 케냐 빈민가 아이들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었다!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사는 곳은 케냐의 고로고초 마을로 세계 3대의 슬럼가라 불리는 마을이다. 그곳의 아이들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악취를 맡으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심지어 끔찍한 쓰레기 무덤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 끔찍한 마을을 본 한국인 임태종 목사님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을 세웠다. 지휘자도 구하고 후원금도 모았지만,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들조차도 자신이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그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은 빈민촌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단으로 비상하였고 케냐의 대통령 궁에서 공연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들의 이러한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만약 한국인 목사님께서 빈민가의 아이들을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더라면, 케냐의 아이들은 지금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대로, 빈민가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 모두는 깊은 땅속의 아직 발견되지 못한 진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간직하고 있다.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찾고 캐고 다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랜 노력 끝에 비로소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 목사님의 열정과 그 아이들의 숨은 달란트의 조화를 통해 얻은 결실의 보배들은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또한 한국인이 뿌린 희망의 씨앗을 통해 얻은 희망의 열매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흐뭇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볼 수 있기까지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경제적 원조와 더불어 우리에게 뿌려준 희망의 씨앗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그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이 탈바꿈의 첫걸음이 선진국의 도움이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나눠주어야 할 차례이다.

어렸을 때, 나는 막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브라운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빈곤국의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아이들. 지금도 나는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60여 년 전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빈곤국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희망 농장의 농부가 되어 빈곤국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



중등부
장려상

빛바랜 추억 속에 피어나는 희망



장지은
서해중학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라고스공화국, 나이지리아, 터키, 이집트 등 총 5개국을 여행한 뒤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된 여성 2명이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저녁 늦은 시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고 마침 텔레비전에선 남아공에 다녀온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했다는 뉴스를 아나운서가 방송하고 있었다.

한참을 뉴스에 집중하시던 엄마께서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 예전 일을 기억하는지 물으셨다.

"여보, 당신도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고생했던 일!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지금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지고 아찔한데."

부모님의 대화를 듣다가 나도 어렴풋이 옛날 기억이 났다.

"너무 아파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힘이 나지 않아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지만 잊을 수 없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

나의 아빠께선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의 일을 따라 우리 가족도 아프리카에서 몇 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 계기로 우리 가족은 베넹에 있는 '베조르메데'라는 마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간직할 수 있었지만, 가슴 아픈 경험도 많이 겪었다.

내 기억 속의 베조르메데는 까만 얼굴의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씨 좋았던 친구들, 그리고 뚱뚱한 1층 할머니, 이웃사촌들도 많아 즐겁고 유쾌했던 기억과 창문을 열면 '훅' 하고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 끈적이는 열대지방 특유의 불쾌한 습기,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시내를 붐비는 오토바이의 경적과 매연, 사하라사막의 뿌연 바람이 마을을 안개처럼 뒤덮어 가끔은《모모》에 나오는 회색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시내가 바로 한눈에 보이는 작은 아파트 3층에 살았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의 1층은 작은 병원이었다. 난 그곳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언니들을 매우 좋아하였고 자주 병원에 가서 우리집인 양 마음껏 뛰어놀았다.

병원은 당연히 이곳 현지인들이 주로 환자로 애용하였고 현지인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곳이었다.

하루에도 열대의 각가지 풍토병, 이질, 피부병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식생활로 인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특히 우기철에는 병실이 모자랄 정도였다.

엄마는 그럴 때면 내가 병원에 놀러 가지 못하게 말렸다. 전염병과 내가 피해를 줄까봐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우기철에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말라리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말라리아는 학질 모기류에게 물려 감염되는 원충 질환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오한, 빈혈, 두통 및 고열 증세가 일어나는 증상이 있지만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은 불행히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들도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이 대 다수였다.

우리 아빠께서도 걸리신 적이 있었다.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받고 약을 처방하고 7일을 쉬고 나면 금방 낫는 병이지만 아빠께선 고열과 구토, 오한 등 정말 힘들어하시고 몸무게도 7일 만에 약 6kg이 빠지셨다. 아빠가 말라리아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걱정이 되었다. 아빠께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병을 아직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얼마나 힘들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말라리아에 대한 의약품 부족이다.

말라리아는 엄마도 아빠도 한 번쯤은 걸려서 나았던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우기철 병원의 병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고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약도 그 많은 모두를 살리기엔 부족하고 약 또한 비싸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 생활하는 소년 소녀 가장도 많고 하루벌이로 생활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저분한 환경, 부족한 음식, 부족한 의료 시설 등이 저개발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뉴스라든지 텔레비전으로 또는 글로 읽는 아이들의 고통과 눈앞에서 보는 아이들의 고통은 정말 확연히 달랐다. 아파서 울며 점점 죽어가는 아이들. 말라리아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우리 집 옆에 살던 내 친구 조던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힘이 나지 않아. 너무 아파!" 라고 나에게 울면서 했던 말을 말이다. 지금도 난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물론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말라리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과 깨끗하지 못한 환경, 무지에서 오는 생활 습관, 부족한 의료 시설, 의약품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 아이들을 도울수 없다는 게 속상하고 화가 났었다.

그렇게 몇 년을 흐르고 지금의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보람찬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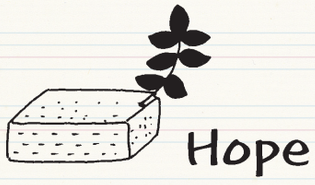
엔 아직도 나의 마을이 살아 숨 쉬고 있고 내 친구 조던이 늘 걱정되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 계신 큰외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옆집에 살던 친구가 후원을 받아 건강하게 나와 같은 중학생이 되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다.

빛바랜 사진 속의 검은 피부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어린 시절 친구가 건강하게 지구 저편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세삼 코이카의 봉사활동에 감사와 훈훈해지는 나의 마음을 느낀다.

그리고 코이카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다짐도 생겼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도 서로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간 나도 희망과 꿈을 품 안에 가득 안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가 되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세상 모든 이가 행복해할 수 있게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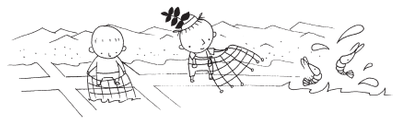


중등부
장려상

나를 성숙시킨 선물



김균희
서울예원중학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토요일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눠주시는데 이 말은 얼마 전에 받은 '토요편지 7'에 있던 내용이다. 선생님의 편지에는 현재의 고통과 시련이 곧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아이티를 생각했다. 그때가 아이티 지진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이었다.

아이티 사람들에게는 지진의 고통과 슬픔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나중에는 슬픔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아이티 사람들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8년 동안 살았다. 그 후 아빠는 사업 때문에 계속 인도네시아에 계시고 나와 동생과 오빠는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그때 나는 3학년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진을 비롯해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는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혹시 인도네시아인가? 하고 걱정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혹시 아빠

가 계신 곳일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빠, 뉴스에서 인도네시아에 또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그쪽은 괜찮아요?”

나는 자주 이렇게 아빠께 전화를 한다. 그리고

“으응, 균희구나.”

이렇게 아빠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안심이 된다.

올해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의 강한 지진은 아이티라는 나라의 거의 모든 건물을 무너뜨렸고 그 아래 깔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그 외에도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의 부상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적은 구호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아이티의 지진 복구를 돕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중에는 한국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옷을 입고 일을 하는 단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이티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또 생각했다. 우리는 아이티와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아이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아이티의 지진을 보면서 나는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생각했고 그래서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연관이 아주 많다. 내가 지진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아이티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지진 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을까?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아이티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티 외에도 지구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전쟁 때문에, 또 자연재해 때문에…… 콩고, 태국, 파키스탄, 케냐, 이란…… 그런 나라들의 등에 올려져 있는 짐을 우리가 조금 덜어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교를 지어주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병원도 지어주고 선생님을 보내주고 의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잘살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나라를 지켜나갈 사람이 없어 항상 외국에 의존하거나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이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가난한 나라도 영원히 가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이티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 아이티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또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코이카 봉사단원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가슴이 뭉클하다. 내가 코이카 단원이 된 느낌이다. 내 미래의 꿈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런 장면들을 보면 눈에 잘 보인다. 나는 WHO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이티나 인도네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족한 점이나 어려움을 짐으로 여기면 평생 그 짐에 눌려 살아가겠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참으로 귀한 선물이 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1반 친구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어줄 선물로 받아들여 충만한 삶으로 가꾸어가기를 바라요.’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꺼내어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아이티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힘겨운 사람들에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의 말을 전달하고 싶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어줄 선물로 생각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장려상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윤나루
보성여자중학교



엄청난 입의 크기와 이빨을 자랑하는 악어의 근처에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악어새가 맴돌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악어새를 보고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공생관계라 한다. 공생관계란 상호 협조, 즉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살고 의존하여 생육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이들을 살펴보면, 악어는 악어새가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줌으로써 청결을 얻고 악어새는 배를 채울 수 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일러주고 있는 듯하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돕는 삶 즉 봉사를 하는 삶이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 살아 있는 생물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이다. 그럼 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일까? 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힘든 6.25전쟁을 겪고 있었을 당시 연합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쁘고 힘들었다. 이렇게 힘든 때에 도와준 연합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다. 만약 그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 때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설립된 이후부터 쭉 원조를 받아왔다. 그런데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인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드디어, 우리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이다.

우리가 속한 DAC가 설립된 목적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 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그 사이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DAC의 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느 생명체에든 이 관계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갓 태어난 새끼 새는 자신의 부모인 새의 도움을 받고 자란다. 그 어린 새끼 새가 힘든 과정을 거쳐 어미 새가 되면 그 새는 자신의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즉,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봉사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더욱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키만 컸었지 정신적으로는 덜 성숙해 세상에는 그저 웃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날, 한 뉴스의 기사를 보고 마



음이 따뜻해졌던 적이 있었다. 봉사를 한 사람은 나이가 드신 할머니셨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폐품을 팔고 재활용지를 팔아 돈을 모아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셨다. 나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다. 만약 할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이었더라면 나는 큰 감동을 받지 못했겠지만 그녀 또한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 그때, 봉사는 돈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봉사라는 참된 의미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나 또한 봉사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는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면 이에 포함된 나라들은 큰 발전을 할 것이다. 개발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면 이들은 눈부신 발전을 하여 사회, 세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세계는 더 발전하게 되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은 빈민국과 개발도상국을 많이 돕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면 얻게 되는 이점이 많다. 첫째로, 도와주었다는 마음에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 또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는 외교 관계 발전의 기회로서 장기적으로는 외교 무역 상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었던 개발도상국이 후에 눈부신 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사이좋게 무역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사회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 또한 선진국들이 꾸준한 도움을 준다면 머지않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아이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고, 엄마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것처럼,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 또한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여 세계를 발전시키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세계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

중등부
장려상

관심으로 짜내는 털모자



박선현
상주성신여자중학교



작년 6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2006년쯤인가? 2007년이던가? 6학년 1반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한다. 밤낮 기온차가 심한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추워서 죽기도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털모자를 직접 손으로 짜서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아프리카로 보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야유를 보내며 싫다고 떼를 썼지만 워낙 선생님의 의지가 굳으셔서 강제로 짜기 시작했었다. 아이들이 열심히 짜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자신이 완성한 털모자를 선보였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초록색 털모자였다. 아이들은 "오~" 하면서 선생님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빨리 만들어지는 대로 아프리카로 보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자고 하셨다. 아이들은 그제야 강제가 아닌, 자신만의 의지로 털모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털모자를 만들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털모자를 각각 꺼내보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자신 있다는 듯이 각양각색의 예쁜 털모자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님은 커다란 박스를 꺼내놓고 "이 박스에 너희들의 털모자를 넣도록 해."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각자의 털모자를 박스에 넣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아이까지 털모자를 넣자 선생님은 박스를 닫아서 테이프를 붙여서 털모자가 나오지 않게 하였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언제 보낼 것인지 누구의 돈으로 보낼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은 해외 택배를 보내서 털모자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며, 오늘 바로 보낸다고 하셨고, 자신의 돈으로 보낸다고 하셨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보내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빨리 자신들의 털모자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털모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하시고는 수업을 마치셨다. 다음 날 아이들은 칼같이 몰려 들어와서 털모자의 행방을 물었다. 선생님은 해외 택배로 잘 전달되고 있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는지 "에이~" 거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아프리카로 털모자가 무사히 전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를 치면서 좋아라 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감사의 편지였다. 서툰 영어로 적은 두 마디였다.

"Thank you. Hats are so warm us."

해석을 하자면, "감사합니다. 털모자들이 우리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였다. 몇몇 아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몇몇 아이들은 그 두 마디의 짧은 편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추억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편지를 학급 게시판에 붙여놓을 테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힘을 내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네!"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이런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편지가 훼손될까봐 집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하셨다.

6학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살짝 눈물이 날 뻔하였다.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의 언니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서 보았다. 물 한 컵을 들고 좋아하는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바로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었다. 이기적이기만 한 선진국 사람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인간이다. 피부색이나 말, 생김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먹고 싶고 편한 곳에서 자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욕구들이나 그들이 바라는 욕구들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나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개발도상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단체들이나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던 만큼, 우리가 상처받았던 만큼, 지금의 개발도상국들도 똑같이 그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있는 이유는 옛날에 겪었던 그런 많은 나쁜 역사 배경들이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하였고 다른 선진국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도움을 줘야 한다. 함께 잘살아야 한다. 나는 그런 날이 오길 빌며 한 발자국 내딛어본다. 지금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어 우리와 함께 행복의 길을 찾기를. 그것을 통하여 그 선생님의 아프리카인들을 향해 전한 따뜻한 털모자처럼 온 세계가 따뜻해지기를…….

중등부
장려상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손예진
화명중학교



2010년 6월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벌써 여름이다. 사람들이 부대끼고 사는 이 지구촌에 아직 빈곤, 갈등들이 넘쳐나지만, 태양 아래 하나 되는 여름을 막을 순 없다. 여름은 내게 고마운 계절이다.

2007년 6월 여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낯익은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성당 사람들하고 '가나'로 봉사 갈 건데 같이 갈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한번 생각해봐."

신부님인 삼촌이었다. 만날 바쁘다더니 웬일로 전화를 주셨다.

가나로의 봉사. 신선하고 새로웠다. 어짜피 외국으로 간다면 여행으로 가지 귀찮게시리 봉사하러 해외까지 가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을의 사회복지관에는 수도 없이 가봤으니 해외로 봉사 가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 뿐이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거기다 바보들이 많은 우리 가족이 이를 거절할 리 없지!

길고 긴 비행기에서의 시간은 지루했지만 그래도 몽롱한 마음을 풀고 공항에서 내렸다. 햇빛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매서울 정도로 내리쬐진 않았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근원모를 나태함까지 뿌리쳐주니 내심 고마운 햇빛이 아닌가? 햇빛이 많든 적든, 걸어나갔다.

가나 사람들 대부분은 흑인이었다. 시내를 둘러봐도 백인이나 황인은 찾기가 힘들었다. 토착어 외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소통하기에 문제는 없었다. 시내를 지나 1시간쯤 더 갔을까. 산을 지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지나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신발을 신은 어린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철로 둘러싸인 비좁은 공간이 집이었으며, 장난감이라고는 축구공 달랑 한 개. 깨끗한 물도 부족하고, 저들이 손님 요리를 해주기 위해 온 주방 기구를 빌렸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휴대폰, 신발 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치스러워 보였다. 빈민가의 어린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어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Do you like soccer?"

축구를 하고 있던 한 아이에게 말을 붙여봤다.

"Yeah, I like it. and I'm a captain of my soccer team.(응, 난 축구 팀 주장이라고)"

축구를 좋아하는데다 축구 팀의 주장이라니? 에이, 설마. 이런 곳에 축구 팀이 있을 리 없잖아.

"Team? What team?(무슨 팀인데?)"

"My school soccer team named dark horse.(우리 학교에 있는 다크 호스라는 팀이야)"

순간 흠칫했다. 가난하기 때문에 축구 팀이 있다는 것조차 무리라는 편견이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으로, 놀람으로 표출된 것을 보고 부끄러웠다. 그래, 가난한 것과 축구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나를 가다듬었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친구들을





불러내었고 나는 한바탕 축구를 했다.

가나의 친구들은 전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눈은– 어찌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던지! 그들과 장난치는 동안에 착함과 순수함에 동화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 수녀님들과 삼촌, 엄마 아빠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곧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기본적인 노동 뿐이었다. 아쉬운 만큼, 봉사하는 틈틈이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기도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베키라는 동생을 만났다. 베키는 여느 마을 아이들과 같이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휴대폰에 걸려 있는 어린 왕자 인형을 보고 왜 눈이 안 그려져 있냐고 묻는 것이다. 너무 낡아 지워졌다고 하자 이어진 베키의 대답.

"눈이 없으면 아플 텐데……."

자기가 눈을 그려준다고 몇 개 없는 사인펜을 털어 자신의 눈처럼 맑은 눈을 그려주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아니라 어린 공주가 있다면 베키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휴대폰 고리를 보면 인형의 눈을 통해 투사된 베키의 맑은 눈이 내 눈가로 서려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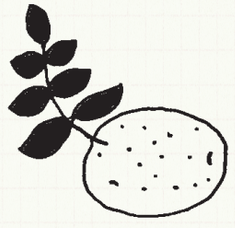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온 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됐다는 거다. 외국인을 거의 본 적 없는 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온 낯선 우리들을 참 따뜻이 대해줬다. 저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아름답게 느껴지길. 나도 그 순수한 친구들이 있는 가나를 친구의 나라로 생각하리라.

가나의 시내에서 한 백인을 만났다. 가나에서는 워낙 백인을 보기가 힘들고 그 백인도 나 같은 황인을 보기 힘들어 곧 친해졌다.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다.

"Don't you think that once a beggar, then always a beggar?"(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쪼아주는 건데. 하지만 한 번 거지는 정말 영원한 거지일까? 아니다. 한 번 거지는 한 번 거지다. 그렇게 말한 당신의 마음에는 진짜 거지보다 더 못한 마음의 거지가 살고 있는 걸 모르시나? 그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희망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세상에 벽을 쳐놓는 일이다. 이 말 자체가 거짓이고 설사 한번 거지가 영원한 거지로 전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함으로써 또 한 번의 비극을 연출하는 셈이다. 그 백인과 말하고 한바탕 머리만 복잡해졌다. 베키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마음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저 백인은 베키보단 여유가 있지만 진정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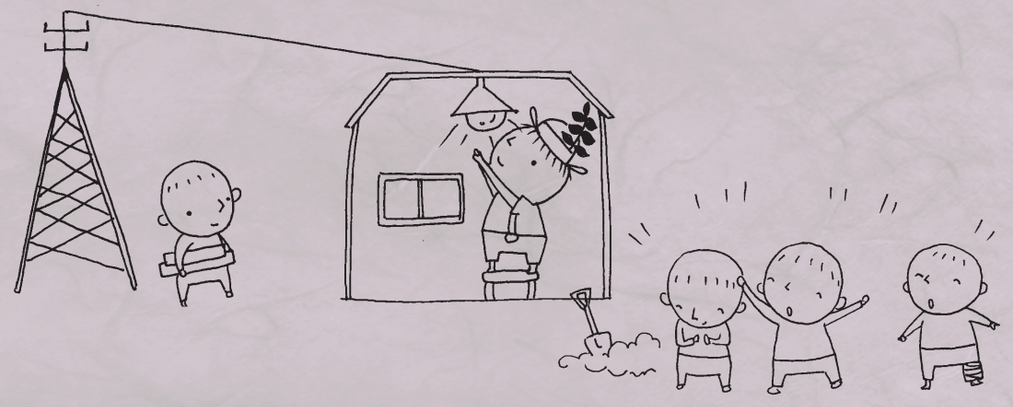
베키야, 어린 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가끔 소중한 것이 보일 때도 있는데 선의 본질이 작은 선행과 봉사를 행할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봉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떠한 논리나 사상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나봐. 그냥 남을 도움으로써 내 자신도 맑아지고 착해지는 느낌이야. 너의 마음의 성역이 가난이나 아픔,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 부터 해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백인에게 봉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한 인간에게 슬픈 일이지. 먼 훗날 외교관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역시 세상은 아름답다고 웃고 떠들 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는 보았다고. 그 아름다움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고등부



고등부
대상



나마스테, 쁘롬가르쵸

김수연
이화여자고등학교



"나마스테~."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께로 모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며 환한 미소로 인사한다. '나마스테'는 네팔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자 인도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마치 한자처럼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이 인사말은 인사를 주고받는 상대방의 지위, 재산, 학력,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고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있는 당신의 아뜨만을 향해 인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 '나마스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정말 '나마스테'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나마스테'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다.

* * * * *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네팔'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유명한 '히말라야'가 네팔에 있는지, 사람들이 왜 네팔로 가는지 관심조차 없던 지난 시간들. 방송에서 사람들이 잔뜩 짐을 지고 결의에 찬 얼굴로 아프리카나 제3세계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왜 오지까지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동상을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로 조각했다. 왜 그랬을까?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 그 답은 바로 '기회'였다. 인생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찾아오듯이 나에게도 그 기회가 찾아왔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만나지만 알아보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만난 네팔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볼까 한다.

고등학교 입학 후 국제 활동 동아리 '나마스테'에 가입하여 2009년 1월 29일부터 10박 11일간 봉사와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함께 가는 친구들 12명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묘하게 어우러져 흥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라는 엄청 못 살 거야, 엄청 더러울 거야, 그곳에는 먹을거리가 충분할까? 화장실은?' 등의 사소한 걱정과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네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뀌기 시작했다. 수도 카트만두에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번화가가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문명 한편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얼굴을 한 하층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동생을 안고 구걸을 하는 한 꼬마 아이, 그가 내게 말을 걸어온 최초의 네팔인이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동아리 친구들과 네팔에 오기 전에 함께 읽었던 글로벌마치(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에서 출간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한 세계 보고서》가 생각났다. 그 보고서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에 들어와 보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에 사로잡혀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의 최악의 조건들을 견뎌내고 있다. 아동노예, 아동매춘, 아동납치, 아동군인 이런 것들은 단지 단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





고 있는 가난한 국가의 현실이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아동노동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한번 보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 역시 이 보고서의 많은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네팔의 아동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경작할 땅이 부족한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여자 아동이었다. 여자 아이 한 명을 선별해 초경 전까지 살아 있는 여신으로 섬기다가 사원을 나온 후에는 신도 인간도 아닌 채 버려져,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는 쿠마리. 그러나 단순한 악습과 인권 박탈로 보기에는 이들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직접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 힘들기에 생겨난 풍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관점으로 무조건 비난하면서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이기심이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었다. 물자를 제공하고 의료 사업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화여자고등학교도 124년 전 우리나라 개화기에 스크랜튼이라는 미국의 여 선교사가 가난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었고 차별과 인습의 굴레에서 살아가던 한국 여성을 위해 한 명의 버려진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시작한 작은 학당이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네팔에 와서 다른 사람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네팔에서 방문했던 소망아카데미 역시 네팔에 의료봉사를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순교한 홍사옥 전공의 가족이 사고 보상금을 기탁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소망아카데미는 KOICA 등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전문대 과정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가질 만큼 성장하여 네팔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네팔 방문 중 가장 잊지 못하는 곳은 꾸린딸 지역의 'Heaven Land'라는 고아원이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줄 줄 아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까닭은 물질에 있지 않고 인간미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고아원 아이들 모두 다 기억이 생생하지만, 특히 '시몬'이란 친구를 잊을 수 없다.

시몬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다른 아이들과 모습이 다르게 생겼었다. 정확히 무슨 종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은 단지 출신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처음 시몬을 만난 날 나는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에 서둘러 다가가 인사했지만 시몬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다시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지만 인사를 하기는커녕 나를 짓궂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만 했다. 그래서 조금은 화가 난 표정으로 "하지 마."라고 했더니 정확한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시몬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더 이상 하지 않았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시몬도 차차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영어 동요와 간단한 한국 인사말을 가르쳤다. 시몬도 열심히 따라하며 즐거운 듯 보였다. 난 처음엔 시몬이 그냥 못된 애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몬은 굉장히 애교가 많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활동에 참여한 시몬과 나는 장난도 많이 치고 잘 통하지 않는 영어로 이야기도 많이 했다.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시몬과 나는 어느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내가 네팔에서 시몬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쁘롬가르쵸(사랑합니다)'였다. 우리가 네팔의 아이들을 돕는 건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사회, 문화, 역사 등 그들이 어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유난히 시몬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랑스러운 하트를 나에게 보내주곤 했다. 이틀간의 고아원 봉사를 마치고 떠나는 날 아침에 나는 시몬에게 "쁘롬가르쵸"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안아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아유, 정말 고마워요. 우리 시몬이 아이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도 당하곤 했었는데 수연 양이 시몬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서 시몬이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시몬에게 해준 것은 단지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밖에 없었다. 나의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한 아이에게 힘이 되고 자신감을 되찾아주게 하다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도 남들과 다르게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물론 크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지만 내 상처로 인해 부모님께뿐만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었다.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은 각자 상처가 있음에도 나처럼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상처를 숨기고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고아원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다른 아이가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위하고 도와주며 살고 있었다. 내가 만약 아이들의 입장이었다면 그 아이들처럼 밝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마음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인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고 친구들에게 네팔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럴 때 몇몇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돕느냐'는 비난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한국은OECD 소속국 중 국외 원조 비율이 최하위권이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어느 부분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겉멋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곳을 경험하고 또한 그곳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돕는 인간애를 알게 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마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우리 사회의 빈곤과 차별의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갖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물질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잊혀버린,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는 또 다른 순수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세상이 서로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네팔은 나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특히 네팔에서의 생활은 절약할 줄 몰랐던 나의 생활 태도를 바꿔놓았다.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발을 디디자 눈이 부셨다. 네팔에서 전기가 켜졌다 꺼지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곧 전기가 꺼질 것만 같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밝게 느껴졌고 전기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씻기 위해 물을 틀었을 때 물이 너무 잘 나와서 나도 모르게 감탄을 했다. 네팔에서는 전기도 부족하지만 깨끗한 물이 잘 나오질 않아 항상 물을 아껴 써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네팔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자원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네팔에서 보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준 네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나처럼 누군가도 제3세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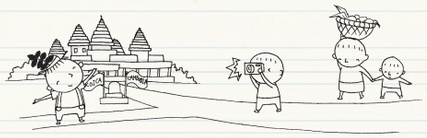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어쩜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건 아마 살면서 큰 힘이 되어줄 삶의 원동력일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호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고등부
금상



어린 생명의 노랫소리

김지혜
서해고등학교



"과연 저 하늘은 관대할까?"

캄보디아의 어린 소녀 마이나는 가만히 누워 캄보디아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바다에 대해 동경심을 갖고 하늘에 대해 원망심을 키워온 그녀. 그런 그녀에게 꿈이 생겼다. 그것은 이 비좁은 캄보디아를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보는 것. 캄보디아의 바다? 바다는커녕 그들에게 물이란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다. 물을 구하려 맨손으로 땅을 헤집는 일이 허다했으며 물이 너무나 그리운 이들은 일명 똥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퍼담기까지 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그녀가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당장 먹고살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꿈까지 꾼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언가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닐까?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 우연히 알게 된 안산 외국인 노동자의 딸, 즉 내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고향인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캄보디아로 갔을 때였다. 사실상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터라 자원봉사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마이나의 마을에 다녀온 이후로 봉사에 대한 긍지가 생겼다. 나는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구슬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먼저 캄보디아의 빈민가에 위치한 고아원에 갔다.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 야위었고 팔다리 역시 너무 말라 부러질 것만 같았다.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에 아이들은 밥 한 톨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맛있게 밥을 먹어주었다. 역시 봉사하러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급식을 다 먹고 나서는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청소를 도와주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다. 그다음 날은 배를 타고 수상마을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물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배에 준비해온 간식 따위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소했던 간식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뚜렷해서 우기가 오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가난하거나 빈곤하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역시나 폭염 속에서 봉사를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 땀에 젖고 더위에 지쳐 생수 한 병을 들고 봉사단 천막 안에 앉아 있던 나에게 한 여자 아이가 다가와 어린 손으로 부채질 시늉을 해주었다. 그게 나와 마이나의 첫 만남이었다. 지친 나에게 힘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하는 내가 안쓰러워 보였던 것일까? 생각에 잠긴 것도 잠시, 마이나의 부채질을 보고 있자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캄보디아로 봉사를 오기 위해 배워두었던 크메르어, 아직 입에 붙지 않아 서툴렀지만 마이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고 싶어 서투른 말과 몸짓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야?"

수줍게 웃던 그녀도 곧 대답을 했다.



"마.이.나"

행여나 내가 못 알아들을까, 느리게 또박또박 말해주던 그녀는 이름을 알려주고는 천막 밖으로 나가버렸다. 수줍었던지 몸을 배시시 꼬며 말을 하던 귀여운 마이나의 모습, 나는 곧이어 천막으로 들어온 친구에게 마이나가 부채질을 해줬다는 자랑을 해댔다.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마이나 얘기를 해주었다.

"마이나는 우리가 처음 봉사 왔을 때부터 봐왔던 애야, 아빠와 동생들이 줄줄이 굶어죽고 일사병에 걸려 죽고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사는데 꿈이 아주 많아! 그, 뭐였더라? 아, 맞다! 바다가 보고 싶댔어. 바다를 보는 게 제 평생 소원이라더라. 어리긴 어려? 그렇지?"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캄보디아에 갓 도착했을 때가 생각났다. 뜨거운 땅에 맨살을 대고 누워 하늘을 보던 여자 아이. 하늘에 대고 말을 하던 그 아이가 마이나였던 것 같았다. 그때부터 마이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이나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이틀을 지켜본 결과, 마이나의 하루 일과는 하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늘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났다. 보면 볼수록 마이나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만 갔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역시나 마이나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 봉사도 대략 정리가 될 무렵이라 시간이 있던 나는 마이나의 옆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이나, 난 바다를 봤어. 아주 많이."

바다 얘기를 하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던 마이나가 물었다.

"바다를 알아? 정말 바다는 파란색이야?"

역시 아이다운 물음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웃으며 대답해주었다.

"바다는 무지 파랗다? 바다 속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잔뜩 널려 있어. 바다는 정말 신기한 곳이야."

바다에 대해 말을 해주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한층 더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에 가고 싶어! 바다에 우리 아빠랑 동생들이 있어! 엄마가 그랬어! 여기 캄보디아가 너무





더워서 잠시 아빠와 동생들이 바람을 쐬러 간 거래! 바다에서 우리 아빠랑 동생들을 본 적 있어? 아, 못 봤겠구나. 다른 캄보디아 친구들도 바다에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를 거야. 아빠랑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나 꼭 바다에 갈 거야."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니 코끝이 찡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마이나는 꼭 바다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마이나가 나를 꼭 껴안으면서 말했다.

"사실은 우리 아빠랑 동생 등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언제 온다고 말해주지를 않아서 매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나쁜 하늘이 아빠랑 동생들을 놔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입술까지 깨물며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리고 만 나는 마이나를 끌어안았다. 마이나에게는 결코 비범한 능력이란 없었다. 다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꿈이 된 것이다. 물이 그리웠던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마이나가 내 품에 안겨 노래를 불렀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노래 역시 바다에 대해 말했던 것 같다.

지금도 그리운 마이나, 사정이 좋지 못해 캄보디아로 봉사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가끔 친구를 통해 그녀에게 옷가지와 간식을 보내곤 한다. 캄보디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지만 그곳에도 마이나처럼 꿈이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꿈은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다. '불쌍하니까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준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녀의 가족들처럼 굶어죽고 몹쓸 병에 걸려 죽는 세상도 곧 사라질 것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살고 있다는 것, 이야말로 불공평한 하늘의 뜻이다. 굶는 아이들의 배와 마음을 채워줄 사람들은 국민이다. 붉은 악마가 해냈던 시청의 뜨거웠던 열기처럼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과 의지에 열정을 실어준 하나의 마음이 붉은 악마의 원동력이었듯이 그 열정을 되살려 그들을 도와보자. 오로지 나만 편하고 잘살면 그만이고 내 마누라 내 새끼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의 풍요가 모두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대들도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이나의 노랫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퍼져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고등부
후원기업상



무지갯빛 나눔의 추억

김경헌
한국과학영재학교



지난해 나는 학교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몽골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몽골에서 지낸 소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면, '무지개'라고 말하고 싶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몽골어로 '무지개'라는 뜻이다. 무지개는 내가 몽골에서 봉사하고 체험하며 나누고 느낀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꿈과 소망을 가득 담은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나와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빨강 – 열정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준비하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3시간 남짓 날아간 곳에 몽골 울란바토르의 칭기즈 칸 공항이 위치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몽골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온통 누런 빛의 황무지와 산이 이어졌고 드문드문 초록빛이 보일 뿐이었다. 주거 양식도 매우 생경해 보여서 몽골에 착륙하기 전부터 내 마음은 몽골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해졌다.

칭기즈 칸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자르갈란트 마을로 향했다. 자르갈란트는 '행복의 땅'이라는 의미로 울란바토르 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초원지대의 마을인데, 이곳이 바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될 곳이었다. 먼저 자르갈란트 시범 농장에 입소하여 지구촌 나눔 운동과 시범 농장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봉사활동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몽골 봉사활동의 목표는, 가축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농작물 재배에 이르기까지 농장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몽골인들이 스스로 농장 운영을 해나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이후 농사를 짓는 법도 모르고 자본도 없이 정착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한 유목민들을 위해 소득 증대 사업과 주민 교육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몽골에서의 첫째 날은 봉사활동과 문화 교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루를 마쳤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주황 –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의 문제에 관심 갖기

둘째 날부터 조를 나누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활동을 하는 틈틈이 농장 여기저기를 둘러보아야 하는 날이기도 했다. 내가 처음 맡은 일은 농장 내 가축들의 변을 줍는 일이었다. 포대에 가축들의 변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모으는 것이다. 가축들이 농장에서 방목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여기저기에 가축들의 변이 많이 널려 있었다. 변을 줍는 가장 큰 이유는 미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몽골인들에게 성공적인 축산 모델이 되기 위한 시범 농장이기에 미화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단다. 변을 모아 비료나

연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변을 말끔히 치운 다음에는 사료 포대를 모아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겨우내 터지거나 상태가 불량해진 사료 포대들을 정리해 창고에 모으는 일이었다. 터진 사료 포대를 따로 분리하고 그 안에 담긴 사료를 새 포대에 옮겨 담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니 힘들었다. 하지만 몽골의 기후가 건조해서 많은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빈곤의 식탁'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 '빈곤의 식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최소한의 식사를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참가자들이 제비뽑기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차등화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는 영양 과잉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게 없어서 아사에 이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빈곤한 나라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무역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희적인 면도 많이 느껴졌지만 식사에서부터 시작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빈곤이 단순히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과 환경 문제에서도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노랑 – 노동의 기쁨 만끽하기

다음 날에는 농장 밖에 있는 감자밭으로 이동했다. 약 5,500평에 달하는 밭에는 감자 외에 옥수수나 열무 등의 작물도 심는다고 한다. 매년 계속되는 경작으로 땅이 척박해져 올해는 쉰단다. 대신 올해에는 내년의 농사를 위해 땅 여기저기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주로 한 일은 밭에 있는 돌을 줍는 것이었는데, 특히 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을 빼내는 일이었다. 부수적으로 흙을 고르는 일도 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겨울 날씨가 이제 막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땅이 정말 척박하였다. 이런 곳에서도 농사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돌도 많고, 흙이 덩어리져 있는 곳들도 많았다.



그날은 봉사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모래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어서 활동하는 내내 마스크와 보안경, 모자 등을 닥치는 대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쓰고 살갗도 까맣게 그을렸다. 하지만 모래 바람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의 8시간에 걸친 노력들이 척박한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보았다. 내년에 그 땅에서 감자를 비롯한 여러 작물들이 풍성하게 수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니 피곤함이 사라지고 보람이 느껴졌다.

초록 – 초롱초롱한 눈빛의 몽골인 만나기

이틀 동안 계속했던 노력 봉사를 정리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를 마치려고 했던 내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더니 급기야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몽골이, 하루 동안에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은 익히 들었고, 전날에도 일교차가 심해 그 말을 약간은 체감하고 있던 터였는데,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다. 5월의 눈이라니, 그것도 어제까지는 습기라곤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말이다.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박으로 바뀌어 얼굴을 따갑게 때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날씨의 악화로 농장 미화 활동을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 빨리 마무리해야만 했다.

노력 봉사를 마친 후에 나는 몽골인 또래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마을로 이동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여 몽골인들과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을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열심히 준비해 훌륭한 장기를 보여준 몽골 친구들이 많았고 몽골의 전통 춤도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슷한 외모 때문인지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진심 때문인지 몽골인들과 친근감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문화 교류를 마친 후 나는 몽골인 또래인 Sunjca와 짝이 되어 한국 친구 두 명과 함께 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다. 간단한 영어로 친구에게서 몽골의 전통 게임도 배우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Sunjca는 진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였다. 서로의 마음을 여니 언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파랑 – 파란 하늘의 몽골과 까만 밤의 몽골

몽골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된 노력 봉사와 문화 교류 행사들이 끝났다. 민박집에서 나와 시범 농장을 거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거리와 도시의 모습들이 새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처음으로 몽골의 시내 풍경을 보았고, 더불어 오랜만에 맑게 갠 날씨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내를 거쳐 테를지로 이동했다. 테를지는 몽골의 국립공원으로, 그곳에서 승마를 하고 캠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게르 캠프장에 짐을 푼 후에 승마 준비를 했다. 난생처음 타보는 말인데다가 말을 잘못 다루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대뜸 말 등 위에 올라탔다. 하지만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처음엔 아예 움직이지 않고 풀만 먹어 애를 태우더니, 코스 밖으로 나가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조금씩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말을 타며 여유롭게 몽골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작은 하천들을 지나갈 때 보았던 맑은 물과 하천 주변의 자연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의 절정처럼 느껴졌다. 말을 타면서 국립공원의 이곳저곳을 다 구경한 셈이었다.

테를지에서의 추억은 이것만이 아니다. 밤이 되면서 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별자리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가! 친구들과 돗자리를 깔고 나란히 누워서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다. 별자리를 찾고 별똥별을 세며 소원을 빌었던 일은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몽골에서의 소중한 추억이다.

남색 – 남김없이 몽골 느끼기

테를지 캠핑을 마치고 다시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동했다. 조별로 몽골 유적지를 둘러본 다음,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눠보는 서바이벌 형식의 관람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먼저 전승기념탑을 방문했다. 몽골은 소련의 요청으로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승리하였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승기념탑을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역사박물관과 간등사원을 차례로 관람했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관람 방식이라 몽골인들이나 관광 중인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를 찾아내기도 했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관람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를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미션 관광이 끝난 후에 몽골의 전통 연극을 관람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세워졌던 거대한 제국 몽골, 한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기도 했던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함을 느꼈다. 역사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겸허한 태도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라 – 보람을 안겨준 몽골에서의 체험 정리하기

드디어 체험 활동 마지막 날이 되었다. 오후에 바로 한국행 항공편이 있어서 오전에 간단히 짐 정리를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몽골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전지에 정리한 다음에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칭기즈 칸 공항에서 오후 1시 30분 비행기를 탄 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착륙하기 전에 인천의 모습을 잠시 동안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인천항,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습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일주일 동안 몽골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환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던 모양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과학 기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발달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7일간의 체험 활동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글을 쓰는 지금도 몽골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열일곱 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봉사활동을 몽골에서 체험하면서 나눔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몽골 친구들을 만나 서로 유대감을 나누었고, 몽골의 유적지와 명소들을 견학하며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일들이기에 무지갯빛 추억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봉사활동을 하며 배운 나눔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앞으로도 내 삶의 일부로 여기며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등부
은상



정의와 평등으로의 여행

서다혜
예당고등학교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걸인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은 본능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불평등에 저항할 본능조차 잃어버렸을 만큼 너무나 오랫동안 절대빈곤에 시달려 왔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

내가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국으로만 알고 있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그들은 다이아몬드로 인해 수많은 내전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전쟁과 빈곤에 지친 국민들의 삶은 황폐해져 갔다. 이제 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면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못하며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다 죽어간 어린아이들이, 전쟁이 자신을 미치게 했다는 소년병 모모가 생각날 것 같아서 앞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낄 수가 없을 것 같다. 또한 3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삶을 마감한다는 이야기는 늘 불만뿐이었던 그동안의 내 삶을 반성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일주일 전 첫째아이를 잃고 둘째아이마저 굶주림으로 잃을 위기에 처한 말라위의 한 젊은 부부를 잊을 수가 없다.

"아이가 왜 이렇죠?"

"먹지 못해서요."

"얼마간 먹지 못했나요?"

"몇 달 됐어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죠?"

"우린 괜찮아요. 아이에게 진한 옥수수죽을 먹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현장 규칙을 어겨가며 몰래 아기 엄마에게 돈을 쥐여준 한비야 선생님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해 보였다. 흔히 사람들은 굶주림의 원인을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혹은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지구에는 60억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분배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말라리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은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어요. 창문마다 이불로 막아놓았죠. 폭격 소리가 나면 동생은 밤새도록 울고 저도 무서워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구구단보다 전쟁을 더 먼저 알아버린 이라크의 꼬마 소녀 베스마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살 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문제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조차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에이즈' 이다. 내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조차 에이즈라고 하면 "자기들이 성생활 문란해서 걸린 병을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에이즈의 모든 문제가 그들의 문란한 성생활 때문일까? 아니다. 일부 몰상식한 선진국의 남성들은 자국에서의 에이즈 감염을 피해서 캄보디아 같은 곳으로 단체로 섹스 관광을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8살, 9살의 여자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고 결국 그 아이들은 창녀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들은 에이즈의 모자 감염을 막는 유일한 수단인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에이



즈의 모자 감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책을 통해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에이즈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새어나오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심지어 에이즈마저 대물림되고 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저 죄가 있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전부일 텐데…….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가장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격차가 벌어진 생활 수준과 더불어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배 관계는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건강을 저하시켜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입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즉, 의식주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불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매일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간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들 누구도 오늘 하루에 진정으로 충실할 수 없다.

나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 국제사회는 최소한의 정의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속이나 한 듯 세계 어디에서나 이데올로기는 동일했다. 공적 개발 원조 금액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언론사들조차도 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선진국의 단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의 침묵 아래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독립선언서의 전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말처럼 귀족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듯이 선진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나를 울렸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에이즈로 고통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3만 원 남짓한 나의 저녁 급식비를 월드비전과 유니세프를 통해 보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후원하는 아이는 잠비아의 9살 꼬마 숙녀 '탄디카니 아이비'이다. 저녁 시간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주린 배를 부여잡고 있다가도, 학교에 가고 건강하게 자랄 아이비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어쩌면 그동안 나의 약자의 경험들이 내 마음을 자꾸 다른 약자에게 끌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남들과 조금 다른 차이가 내게는 늘 차별로 돌아왔다. 그래서 한비야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힘 있는 자에게 보태며 달콤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는 편보다는 그것을 힘없는 자와 나누며 세상의 불공평, 기회의 불평등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한국국제협력단' 에 들어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으며 도움을 촉구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울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니?"라고 질문을 한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한국 땅을 도운 외국인들은 자국이 풍족하다고 판단해서일까? 아닐 것이다. 그들은 마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과 고통을 보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외국 할머니들의 쌈짓돈이 없었더라면,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인해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에서조차 그들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국가의 존립 자체부터가 미약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우리의 윤리적인 무관심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기아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안정화는 선진국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리들의 소극적인 노력만으로는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정의가 모인다면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이다. 단지 불쌍하다는 연민의 눈길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줄 때이다. 인류애의 실천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풍요로운 지구촌을 건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 쿠바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체 게바라의 말처럼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을 계발하고, 자유와 평등의 깃발 아래 떨쳐 나설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고등부
동상

나눔은 희망,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윤혜원
경희여자고등학교



"Nama Kamu Siapa?"[나마 까무 씨아빠~?(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낯선 외국인이 묻는 이 질문에 까무잡잡한 얼굴과 큰 눈망울로 수줍어하며 자기 이름을 소개하던 순박한 아이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난기류를 뚫으며 7시간하고 다시 1 시간의 비행으로 어렵게 도착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의 11일 동안의 봉사는 서툴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었다. 나눔은 내게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주었고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올해 초에 정부기관에서 주최한 청소년 해외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중학교 때부터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KOICA의 활동을 보면서 해외봉사의 꿈을 키웠던 내게 청소년 해외봉사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트리스티안토의 고국 인도네시아여서 더욱 뜻깊었다.

첫 해외봉사라는 설렘,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봉사해야 하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다시 1시간 비행을 거쳐 목적지인 족자카르타에 소재한 SD SAGAN 학교에서 희망 도서관 만들기, 벽화 그리기, 한국어 교육 등 우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갔다.

내가 소속된 팀은 벽화 팀이었다. 한국에서 알았던 정보와 달라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

고 현지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작업하기가 나빴다. 사다리가 부서져 사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 키보다 3~4배 높은 곳을, 계단 위에 의자, 책상을 불안정하게 쌓아 올린 채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야 했다. 벽 스케치는 사람의 어깨를 지지대 삼아서 높은 곳의 스케치를 완성시켜야만 했다. 또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매일매일 회의를 거듭하면서 작업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작업 완성도가 체력과 정신력을 힘들게 했다. 검은 시멘트 벽은 정성스럽게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노란색의 파스텔 톤으로 감추기엔 역부족이어서 두 번 더 도장을 해야 했다. 예쁜 해를 보여주고 싶어 빨간 해를 그렸는데, 페인트 작업이 서툴러서 흘러내리는 페인트를 넓혀가다가 그만 해가 너무 커져버려 흉물스러워지는 바람에 긁어내야 했다. 급기야는 주문한 페인트가 잘못 와서 갖고 온 페인트로 색을 겨우 만들어 써야 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 했다. 벽 도장 후 'Global Korea G20'이 벽에 새겨지고 내가 그린 지구가 생기고 구름들이 나타나고 분홍색 계단 난간이 완성된 후 팀원들은 탄성을 질렀고 모두 행복해졌다. 매일 구경왔던 아이들도 계단 벽화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짠띠!(예쁘다!)"를 외쳐 우리를 기쁘게 했다. 습하고 불쾌함이 저절로 느껴지는 무더운 날씨와 서툰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들에게 한국어 교육 시간에 배운 '곰 세 마리'를 불러주며 위로를 해준 착하고 예쁜 천사들이 끝까지 지켜준 결실이었다.

페인트 자국을 닦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엔 그저 새까만 시멘트 벽을 보며 "어떡하지?"라는 말만 나왔던 벽과 계단은 어느새 우리의 붓질로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그동안 흘렸던 땀과 쏟았던 열정이 하나의 열매로 결실 맺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나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눔은 정말 나누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했다. 처음 학교를 찾았을 때 전교생이 모인 환영식이 끝나자 아이들은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우리를 신기한 듯 숨어서 구경했다. 가까이 오라는 교장선생님과 우리의 손짓에 아이들은 놀란 듯 얼굴을 붉히며 숨어버렸다. 그래도 용감한 아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다가와서 물었고 "We are from Korea."란 대답에 너무 좋아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사람은 몹시 싫어하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은 유난히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영어를 잘했던 영리한 라띠프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볼 때마다 한국어를 물어봤다. 라띠프는 꼬마 신사 같은 미소를 띠고 우리의 작업 현장을 유난히 자주 드나들어 귀여움을 받았는데, 태권도복을 입은 내 모습을 무척 부러워했고 태권도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은 손만 흔들어도 반색을 하





며 맞받아 손을 신나게 흔들어댔다. 외국, 특히 말로만 듣던 한국인들을 처음 본 아이들은 작업할 때마다 찾아와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들과 친해지고 싶어 장난을 치고 집에 가는 것도 잊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까지 모셔와 인도네시아 뱀을 보여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 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우리가 선물로 준비했던 학용품을 나눠줬을 때 한국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연필 한 자루를 아이들은 아주 소중히 간직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우리를 너무 잘 따르던 순수한 아이들이 그저 고마웠다.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우리 손길이 닿은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흘간의 봉사가 끝나고 한국의 날에 많은 아이들이 헤어지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해외 봉사를 다녀온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온다는 것인지 깨달았다. 자신을 낮추고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니 그 어떤 것도 하찮게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 나눔을 통해 이제는 아이들의 눈빛만으로도, 미소만으로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환송식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운동장에 일렬로 도열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너무 융숭하고 미안하고 가슴 뭉클한 아이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아이들을 하나 하나 안아주면서 우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과 슬픈 이별을 했다. 우리 팀이 탄 버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맑고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 우리가 탄 버스 뒤를 끝까지 쫓아오며

손을 흔들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부모 형제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워했던 아이들의 모습만 생각하면 자꾸만 목이 메고 눈물이 난다.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같은 두 글자 '인도'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은 국가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다. 이런 나에게 만남과 나눔을 통해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나눔이 주는 희망'을 가르쳐준 인도네시아와 아이들! 정말, 고마워!"

나눔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눔은 바이러스였다.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는 사랑의 바이러스였다. 족자카르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청장님은 예전에 대학시절 한국에서 한국인 노부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봉사 팀이 방문하면 고향 사람 같아서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다. 교육청장님은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봉사 팀은 교육청장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SD SAGAN 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느꼈다. 우리와 짧은 순간을 동고동락한 'SD SAGAN 학교' 아이들도 한국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눔은 희망이다. 그리고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의 희망이다. 한국은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의 롤모델이라고 한다. 한국은 참혹한 전쟁을 겪고 가난에 시달렸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절대 빈곤으로부터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1970년대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고속도로 '자고라위'를 건설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OECD DAC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인정받은 우리 한국이 한국 발전 원동력의 노하우를 전해 모든 나라가 잘살도록 기여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나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살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열망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 나눔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나눔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발전을 도모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나도 인도네시아 이외의 다른 개발도상국가 원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정열을 쏟으며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미래 KOICA 단원으로서 태극기를 달고 인도네시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

"나눔을 통해 만난 두 남동생, 라띠프! 트리스티안토! 너희도 예쁘게 성장해서 지구촌 형제 모두가 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길 바래."

고등부
동상

아디티의 이야기



윤인영
점촌고등학교



안녕?

내 이름은 아디티야. 난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

파키스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인도 옆에 있는 나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카슈미르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하하, 사실 다 맞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 혹시 이번 월드컵 봤니? 남아공에서 열린 월드컵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거렸지. 열심히 응원도 했다고?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에 쓰인 공인구 '자블라니'도 봤겠구나. 왜 갑자기 불쑥 축구공 얘기냐고? 축구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니? 잘 모르겠다고? 축구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파키스탄이야. 의외라고? 더 의외인 사실을 가르쳐줄까? 많은 파키스탄 아이들은 축구공이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말이야. 사실 나도 축구공 하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 난생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지 몰라. 그래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겠니?

우리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셨어. 새벽 4시 즈음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일터에 나가셨어.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셨지. 우리 6남매가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 믿을 수 있겠니? 하지만 우리는 늘 가난했어. 집에는 항상 먹을 게 없었고 언제나 배가 고팠지. 우리 6남매는 비쩍 말랐고 내 막냇동생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구루병에 걸려 다리가 구부정했어. 걷는 데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지. 난 그 아이가 걸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



을까 조마조마했고 마음이 아팠어.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가난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을 떨어도 빚은 도무지 줄지를 않았고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어. 가난한 마을마다 꼭 있는 게 뭔지 아니? 바로 고리대금업자야. 우리 부모님이 고리대금업자에게서 처음 빌린 돈은 적었지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때문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어.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어.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 아버지는 죄지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만 계셨어.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하셨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자식이라도 일해야 하지 않겠냐며 능글맞게 웃었어. 나는 소름이 끼쳤어. 그들은 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날 공장에 보내서라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난 그날부터 일하러 나갔어, 축구공 공장에.

축구공을 만들려면 오각형과 육각형의 가죽 32조각이 필요해. 그걸 다 꿰매려면 1,620회의 바느질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축구공 하나를 만들려면 13~14시간이 걸려.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어. 공장은 어두컴컴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식사도 부실해서 언제나 배가 고팠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는 돈이 얼마냐고? 하루 300원 정도. 바늘에 찔려서 손에서 피가 멎는 날이 없었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얼굴은 누렇게 뜨기 일쑤였어. 내 옆에서 일하던 무디라는 남자애는 유독물질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말았어. 그 아이는 그렇게 쫓겨났지. 그게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매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다보니 꿈이라는 건 사치로 느껴졌어. 나라는 아이의 운명은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축구공이나 바느질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희망도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난 점점 말이 없어졌어. 우리가 만든 공이 외국에선 500배 넘는 가격에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는 그냥 허탈하게 웃었어. 내 친구가 힘없는 눈빛으로 말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래서 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기운이 빠져 터덜터덜 집으로 갔어. 빨리 잠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감시인한테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던 터라 기분도 최악이었거든. 집에 도착했는데 글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보다 얼굴도 하얗고 키도 훨씬 크고 건강해 보였어. 나는 반사적으로 또 빚쟁이들인가 싶어서 숨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세히 보니 우리 부모님이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손짓하며 나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 난 쭈뼛쭈뼛 다가갔지. 낯선 사람들 중 한 언니가 날 보고 방긋 웃더니 무어라고 말을 했어. 옆에 있던 분이 우르두어로 "네가 아디티니?"라고 통역해주셨어. 그리고 그 언니는 날 꼭 안아주었어. 나는 너무 쑥스러워서 빠져나가려고 했지. 그 언니는 내 손을 잡아보더니 슬픈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어. 아마 내 굳은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손 때문이었나 봐. 그 언니는 한 번 더 나를 꼭 안아주었어. 여전히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썩 괜찮았어. 난 그 언니가 아주 좋아졌어.

그 언니가 누구였나고?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KOICA 단원이었어. 그 단체는 내가 사는 지역에 직업 훈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왔대. '의류생산기술훈련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어. 그 언니와 단원들은 날 그곳에 데려가서 훈련을 받게 해줬어.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교재를 받을 때에는 가슴이 벅찼어. 축구공 가죽이 아닌 부드러운 실을 만진 건 정말 처음이었어! 간혹 내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해도 매 맞지 않았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어. 날마다 날 때리고 못살게 구는 감시인과는 아주 달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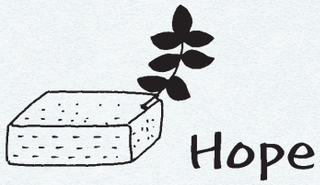
내가 배운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연습해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신이 났어. 보드랍고 연한 실을 만질 때마다 내가 섬유공장의 주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섬유공장 사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도 생겼어. 그게 뭐냐고? 이건 비밀인데, 어렸을 때 나처럼 축구공을 꿰매느라 몸도 마음도 상해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싶어. 내가 KOICA 훈련원에서 받았던 것처럼 말이야.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매우 기뻐하셨어. 그날부터 선생님들께서는 더 성심껏 나를 가르쳐주셨어. 난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습했어. 나도 꿈이 생긴 거야!

요즘은 섬유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야. 자격증을 따면 섬유공장에 취직할 생각이야.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막냇동생을 병원에 데려갈 거야. 구루병을 꼭 고쳐주고 싶어. 어제 단원 언니에게서 들은 얘긴데 막내가 아직 열 살이 안 되어서 구루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걷는 내 동생을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동생이 바로 서서 본 세상은 어떨까? 아마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내 이야기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하하, 그렇게 들릴지 몰라. 하지만 영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 마.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나올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아기 코끼리 두 마리



김예은
백암고등학교



토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분갈이를 시작하였다. 화분 맨 밑에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물망을 깔고 그 위에 큼직한 돌들을 넣고, 그 위에 약간 작은 돌, 그다음에는 흙과 분갈이할 나무와 함께 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끼류의 식물을 깔았다. 동생이 화분에 물을 주면서 말했다.

"새집에 잘 적응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전에 분갈이를 잘못하여 죽어버린 나무 몇 그루를 생각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인 흙과 물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린 안타까운 벤자민을 떠올렸을 것이다. 엄마는 아주 커다란 화분에 산세비에리아, 금전수, 인도고무나무 등을 함께 심으시면서 함께 심어도 잘 어울려 자라는 나무라고 하셨다. 그랬다. 실제로 서로 다른 종류들이 어울려 꽃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을 '식물 한 마을', '작은 숲'처럼 예쁘게 어울렸다.

그날, 여러 개의 분갈이를 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사람은 랄 아저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삼촌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20년 전쯤 성남의 겨울 밤거리에서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랄 아저씨의 친구들인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 아저씨들과 삼촌의 만남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추운 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아저씨들을 교회 지하실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다. 아저씨들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친구를 데려왔고 삼촌과 랄 아저씨는 그렇게 만났다. 성남지역 도시 빈민들과 공단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작은 교회의 전도사로 살던 삼촌(나는 삼






촌을 오지랖 삼촌, 오삼이라고 부른다.)은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친구로 살아오셨다.

랄 아저씨는 스리랑카에서는 엘리트 인재였다. 랄 아저씨뿐만이 아니었다. 친구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분들은 먼지 많은 솜 공장, 시끄러운 철제 가구 공장, 건강에 좋지 않은 독한 염색 공장, 비닐 공장, 사출 공장, 위험한 공사장 등에서 일하셨다. 아저씨들의 향기로운 꿈과 따뜻한 마음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랄 아저씨에게는 라자팍스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스리랑카 청년들이 따르는 지도자로 국회의원이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국가기념일에 그분을 만나 스리랑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을 때 삼촌은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왔고 그것을 계기로 두 분은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서남아시아가 지진해일로 인해 아파할 때의 일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로 인해 삼촌은 스리랑카로 가시게 되었다. 자신들은 불법체류자라 가기도 어렵고 가족들의 생사도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라며 그분들이 모은 구호물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지랖 삼촌은 여기에 주위 아파트에서 모아준 물품들과 트럭 몇 대 분량의 의약품들을 어렵게 마련하고 친구인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을 불렀다. 놀랍게도 그 의사선생님의 친구들인 의사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도 선뜻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랄 아저씨는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삼촌과 함께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여진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삼촌이 돌아오던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아빠와 함께 공항에 갔었다. 처참한 삼촌의 몰골에 숙모와 사촌동생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느낌도 잠시, 우리는 삼촌의 보고에 가슴 시린 슬픔과 아픔, 감동과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지진해일이 지나간 자리의 말도 안 되는 처참함에 울어야 했고, 장비들을 동원한 시신 발굴, 급수 시설과 복구 팀의 운영 등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서방 국가들의 체계적인 모습이 부러웠으며, 한국의 해외봉사단원들의 활동을 보고 자랑스러웠다.

삼촌은 그 이후에도 선생님인 친구들로 학교를 세우게 하고, 의사선생님인 친구들을 동원하여 병원을 세우고 지원하게 하고, 고아원을 돕게 하셨다. 또 틈만 나면 딸들과 그의 친구들, 조카들과 조카의 친구들을 불러 자원봉사활동을 시키셨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호출하는 오지랖 삼촌 덕분에 반납해야 했던 명절과 자유시간과 한때의 유흥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보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랄 아저씨와 친구들 또한 기름 유출 사고 때 망설이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갔다. 생김새도 다르고 국적도 다 다른 친구들의 고마운 모임이었다. 랄 아저씨는 지금도 한국에서 삼촌과 함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랄 아저씨의 삼촌인 라자팍스 아저씨는 국회의원에서 총리로, 그리고 지금은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되셨다. 그리고 얼마 전, 삼촌을 초청하셨다. 그리고 친구로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 선물이 바로 아기 코끼리 두 마리이다.

삼촌은 잘 몰라서 그 선물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황당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몇 안 되는 코끼리들은 모두 늙어버려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코끼리 멸종 위기를 걱정한 외교통상부에서도 코끼리를 구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코끼리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어 진척이 없었던 차에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다. 어린 암수 두 마리의 코끼리는 랄 아저씨와 삼촌의 우정이 만들어 낸 선물이다. 7월 말쯤 아기 코끼리 두 마리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기한 동물 열 몇 종류가 함께 우리나라로 온다는 소식이다. 어느 동물원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우정의 선물 녀석들을 감상하러 나도 가볼 참이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물론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엿한 사회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외봉사단에 지원도 할 것이다. 일을 하고 돈도 벌어 이웃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부모님 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던 바람 없는 시기는 끝이지만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를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인내하는 이유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분갈이한 식물들이 새 세상에 자리를 잡고 무리를 이루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성들였기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나 우리 사는 세상에 예쁜 향기를 전해주리라고 기대해본다.

고등부
장려상

울어라, 눈이 팅팅 부을 때까지



황은석
성문고등학교



2008년 겨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육을 하는 WCNI의 컴퓨터실에서 외고 아이들의 부드럽고 아리따운 핑크빛 영어가 울려 퍼진다. 그런데 갑자기 키 큰 남자애가 딱 들어오더니 핑크빛 악보에 촌스러운 붉은빛 음을 마구 끼워 넣는다. 그야말로 불협화음. 그 불협화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싸구려 영어를 구사하는 황은석, 바로 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를 손짓 발짓 써가며 말을 걸고, 이리저리 부딪치려고 했다. 이런 내 행동에 그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저놈. 말 걸라고 기를 쓰는구먼? 웃기는 자식.'했을 게다. 처음엔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발음의 진동은 딱딱해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발음의 진동만큼 마음속 흑인에 대한 편견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들의 딱딱한 발음의 진동은 내 마음을 울리는 진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마음속 편견도 깨버렸다.

나와 그분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대화하는 사이, 마음의 화분 속에 눈물이라는 씨앗이 심어졌다.

이 씨앗에 새싹을 돋게 해준 주인공은 30대의 아저씨도 아닌, 20대의 형도 아닌 9살의 아프리칸, 우리 교실에서 친근한 흑인 아저씨의 아들, 사명이었다. 병아리는 어미 닭이 어디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따라오지 마!" 해도 굳이 따라가고 싶어한다. 사명이도 이런 마음이었는지 컴퓨터 배우러 가는 아버지를 쫄래쫄래 따라왔나 보다. 당연하게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밖에서 날뛰고 싶은 9살의 꼬마에게는 고역일 터. 하품 찍찍



하고, 의자 이리저리 흔들어대더니 나중엔 혼잣말까지 한다. 이럴 때 걸어주는 말은 '달콤한 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걸 알기에 사명이 옆에 살포시 앉았다. 이렇게 우리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와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깔이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우정의 빛깔도 조금씩 깊어졌다.

사명이는 남아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에 낼 학비가 없어 보통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학비가 없다는 말에서 나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으면 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모르는 서러운 경험이 있던 터라 괜찮냐고 물어봤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사지 못하고, 배가 고픈데 급식을 신청하지 못해서 서러웠던 적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명이는 씨익 웃으면서 말한다. "학교 짱 좋아! 선생님도 좋고!" 그런데 조금 입술의 끝이 구겨지더니 친구가 만들고 싶단다. "내 짝꿍, 처음엔 잘 지냈어. 얘들이 괴롭히고 놀리니까 지금은 걔도 나 싫어해. 친구 만들고 싶어." 얘기를 듣고 아이들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계속 물어보니 체육할 때 짝 되는 것도 아이들이 싫어하고, 혹시 살이 닿거나 하면 욕한단다.

웃고는 있는데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명아. 형한테 네가 속으로는 괴로워하고, 구석에서 울고 있고, 찡그리고 있다는 걸 숨기려면 제대로 숨기지……. 겉으로 웃고는 있는데 너의 눈에는 왜 눈물이 맺혀 있니? 왜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울고 있니?'

난 순간 이 개발도상국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져버린 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이 분들도 사명이와 같을 것이다. 겉으로는 나와 해맑게 대화하고 나와 떠들고 '허허허' 웃고 하시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동남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슴속은 차별이라는 불로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을 거다. 나쁜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져댔으며, 그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을지, 얼마나 뜨거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느끼기 싫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어서, 생각으로만 하는 나에게도 그 상처의 아픔이 전해졌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그 아픔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탁 막혀버렸다. 그냥 멍해졌다. 사명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안 그래도 찢어진 내 마음을 더 찢는 것 같았다. 내가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친구가 돼서, 친해져서 느끼는 아픔이었다.

슬퍼하던 중 '이 사람들의 친구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순간 나의 눈동자는 커졌다. 그렇다. 지금도 나는 그분들이 컴퓨터 수업을 하러 오실 때 기계에 찧어 멍든 손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일을 잘 못하면 욕하는 나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눈물의 새싹은 더욱 자라났다.

사명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내 눈물이 되었고, 내 커진 눈동자는 열 번을 토하며 말했다.

"황은석, 이 씨앗의 꽃을 피워내라. 네가 영어를 잘하려고 말 한 번이라도 더 걸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느끼려고 해라. 그 날카로운 상처와 피비린내 나는 아픔에 네가 더 울어라. 그리고 그분들이 기뻐서 울 때 함께 기쁨에 취해 울어라. 눈이 팅팅 부을 때까지."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성장의 눈물이었다. 영광의 눈물이었다.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들에게 새살이 되자는 의지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자는 약속의 눈물이었다.

사명이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흑색 손으로 내 손을 꼬옥 잡는다.

고등부
장려상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대한민국!

이준헌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지금 나는 한 소년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01년 9월 23일생, 연두색 티셔츠와 까만 반바지를 입고 목이 긴 운동화를 신고 있는, 다소 굳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내 동생 은타리 크리스티안의 사진이다. 2년 사이 부쩍 자란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다. 순하고 착해 보이는 큰 눈을 가진 내 동생은 르완다에 산다. 구슬치기와 달리기, 축구, 훌라후프하기를 좋아하고, 영어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내 동생 은타리를 나는 2년 전에 만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후원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본 첫 장면은 '깡통'이었다. 거지들이 동냥할 때 쓰던 것인 듯싶었는데, 아뿔싸, 미국 컴패션 본사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다음에 비춰진 조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복을 입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그대로 앉아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았다.

1952년 새벽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인부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 목사는 걸레뭉치처럼 쌓여 있는 아이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밤사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간 아이들의 시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스완슨 목사가 아이들이 구걸하던 깡통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전쟁고아들의 참상을 알리고 모금을 하여 아이들을 하나 둘 돕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컴패션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컴패션은 현재 전 세계 25개국 약 110여 만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수혜국에서 탈피하였고, 2003년 10번째 후원국으로 재탄생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었다고 한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거듭나 이제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한국이 바로 컴패션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거기서 끝났지만 내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쟁 후의 고달픈 삶을 견뎌야 했던 내 나라의 과거가 가슴 아팠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남을 돕는 나라로 우뚝 섰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인 도움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가 '아프리카 르완다의 6살 아이 은타리'였다. 또래보다 작고 마른 몸집이었지만 나무 모으기, 물긷기 등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맑은 눈을 가진 은타리를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가뭄이나 지진 해일 등의 소식을 들을 때면 귀를 곧추세우게 되었고, 은타리를 비롯하여 후원을 받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은타리 역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것이고, 다 자라서는 르완다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일하고 싶어할 것이다.

신문지상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70.5를 받아서 2년 전 72점보다 더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75.9에서 72.1로 하락률이 가장 크다고 한다. 물론 고3 학생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서 65.6이었다. 취업 부담과 입시 스트레스가 그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리라. 젊은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밝고 행복한 미래가 있을까? 더구나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지 않은가?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에서 실시한 국가별 행복 지수(HPI)조사에서 중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가 76.1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인구 50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 6,580달러에 불과한 이 코스타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발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조사는 물질적 기준인 국민총생산(GDP)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대 수명, 행복감, 생태적 척도 등이 기준이었다고 하니 부의 축적이나 물질의 발달 추구에 열심인 나라는 행복하기 어렵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68위, 미국은 114위라고 한다. 이제 행복은 소득을 증대하고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삶과 강한 사회적 연대를 꾀하는 데 있음이 자명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 또한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남과 비교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찾아내고 노력한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또한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넓어져 가야 비로소 내 존재가 가치를 발휘하고 내 삶의 의미가 단단해져서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 처음에는 '가족'에서 '학교', '나라' 등으로 조금씩 넓어지더니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겪었던 1950년대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가, 1970년대까지는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



이는 것과 개개인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행복 추구가 목표가 되었다.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거름이 되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놀라운 저력을 가진 나라인 것이다.

처음 텔레비전에서 한복을 입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과 구걸하는 도구인 '깡통'을 보았을 땐 창피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컴패션 본사에 우리의 남루한 과거 모습이 걸려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는 나의 창피함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전쟁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깡통 모금'이 이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를 돕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기쁘고 고맙기 그지없었다. 더구나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가 후원국이 되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니 무척 자랑스러웠다.

한국을 위해 시작했던 컴패션의 역사에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는 다른 각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모델로 부각된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KOICA-UNDP 공동 연수-아프가니스탄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내용인즉,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소개하고, 자국 실정에 맞는 농촌 개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한 결과 성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KOICA의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인권정책'이나 '공무원 교육 제도 연수', '토지주택정책'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돕는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 나라의 위상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게 되면 뿌듯해진다.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활기찬 나라로 알려졌으며, IT 강국의 면모를 알림으로써 '빨리빨리 문화의 역동성'을 얻어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동계올림픽을 통해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얻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도 아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나라, 경쟁이 치열해서 젊은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 등 우리를 슬프게 하는 면 또한 남아 있다.

미래에는 국가의 힘보다 비영리단체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의 규제보다 개인의 저항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국가'라는 영역이 희미해지고 '나'의 의미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나눔과 배려가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미래를 살아야 할 나로서는 고민이 많아지고 방향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럴 때마다 난 은타리의 사진을 본다. 2년 사이에 참 많이 자랐다. 이젠 늠름한 소년의 모습이다. 은타리의 생각도 많이 자랐으리라. 6살 아이의 천진난만함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속 깊은 아이가 되어간다. 내 동생 은타리는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돕겠다고 한다. 그런 은타리를 생각하면 나도 기운이 난다. 은타리가 자라는 만큼 형인 나도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내동생 은타리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겠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등부
장려상



앙골라 왕자의 가르침

이은정
분당대진고등학교



제가 좋아하는 둘째 외삼촌이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일 년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가족들은 앙골라 왕자가 귀국했다며 반기고 등을 두드리십니다. 외삼촌은 앙골라에서 빌딩을 짓고 거기 IT설비를 장치하는 것이 임무인데, 워낙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불편함이 많아서 일 년마다 교대를 한답니다. 그동안 삼촌이 겪은 많은 사연들을 가족들과 나누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에 앙골라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에 매서운 가시가 숨어 있듯 아프리카의 보석 앙골라는 아직도 많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으며 국민들 마음속에도 불안과 고통이 숨어 있어 외부인을 환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어릴 적 시골 마을에는 미군이 육중한 군용 트럭을 몰고 다녔답니다. 코 큰 미군들에게 다가가서 "김미껌."이라 하여 껌을 얻어 씹었고, W.C.가 Water Closet이 아니라 W가 엉덩이 모양이고 C가 '쉬~' 발음이라 화장실이라는 괴짜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랍니다. 그때 참 우리는 살기 어려웠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중에 필리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보다 더 옛날로 가면 6.25전쟁에 세계 여러 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중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한 남아공은 물론 에티오피아가 군대를 보내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막연히 못살고 굶어죽는 아이가 넘치며 전염병이 번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프리카의 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판단입니다. 아프리카는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보다 더 길고 큰 고통을 겪었으며 노예로 팔려나간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면서도, 공산당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어려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기 힘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저처럼 어린 학생들은 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이번 앙골라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곳 사진들을 보여주며 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2세기를 보낸 앙골라는 1975년 독립했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을 탐내는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음모, 국민의 낮은 교육 수준,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나라 6.25전쟁 직후의 풍경이 남아 있답니다. 지폐에 나온 거북선을 내보이며 조선소의 자신감을 설득했다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배짱, 독일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하여 마침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제 발전의 기본 인프라

(Infra)를 깔아낸 박정희 대통령 같은 큰 인물이 앙골라에는 부족한가 봅니다.
외삼촌이 앙골라에 입국할 때 비행기에서 내린 가방은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대부분 도난당했고 숙소까지 이르는 길은 가깝지만 비포장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답니다. 자동차를 함부로 주차하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차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변명부터 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처벌을 두려워하는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는 것, 지시한 것 외에는 고지식하게 꿈쩍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국민성 등 앙골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이 외삼촌의 얘기에는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고, 당장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을 돕기도 바쁘며, 우리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넘치는데 무슨 외국을 돕느냐고 말이죠. 그럼 60년 전 전쟁에 우리나라를 돕자고 군대를 보낸 나라들은 한국에 빚을 져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불우이웃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 민족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큰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어려워도 이웃에 힘든 일이 생기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던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를 맞아 이 공동체 의식을 세계화시키는 사고의 국제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신문에는 미국의 교포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지역에 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대하여 감사의 잔치를 열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빠는 일부러 기사를 오려내어 제게 보여주시며 "은혜를 잊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든 혹은 앙골라 같은 저개발국가이든 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아빠와 외삼촌은 입을 모읍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달 용돈의 조금을 나눠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를 동생으로 자매결연 맺고 인연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우리 주변은 물론 멀리 해외에까지 조그만 도움의 정성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결초보은의 착한 마음을 잊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서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앙골라는 대서양의 석양이 너무나 곱고 그 배경에서 순박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풍요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그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생겨 그것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바로 지구촌의 관심과 도움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든든한 친구로 당당히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부
장려상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



탁희연
선일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한다.
많은 우리나라 내 또래 아이들의 고민처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문제가 크다. 하지만 작가를 꿈꾸는 나의 고민은 조금 다르다. 무엇을 보고 느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보다 원론적인 것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즐기면서 그동안은 막연히 작가를 꿈꿔온 나에게 이제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나 자신이 삶에 대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등이 충분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조간 신문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피지, 봉사 천사 이봄이 씨– 더 많은 것을 못 줘 아쉽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대략의 내용은 이랬다. 이봄이 씨는 국내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후 한국국제협력단의 일원으로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에 파견돼 2년여 동안 국립 피지대학에서 원예 방면에 대한 기술 지도와 강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지 언론에 봉사 천사로 수차례 소개되고 현지 일간지에 '한국인들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칼럼에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문 방송 매체에 해외에서 봉사를 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될 때면 별다른 감흥 없이 대단한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유독 이 기사는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름 아닌 그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었다.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삶에 가슴이



아팠다. 이들이 자식 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 이들의 자식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사에 나온 그녀의 나이는 28살, 기사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는 조그만 흑백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가냘프고 앳되어 보이는 평범한 20대 언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크고 당당해 보였다.그녀가 한 말처럼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다음 자식 세대에 가난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고, 그 순수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팽배해 있고, 젊은이들은 배금주의와 개인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자신의 20대 청춘의 소중한 시기를 다른 이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나은 삶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그녀와 같은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조용하고 자그마하지만 대단히 큰 힘을 가진 삶이라 느껴졌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읽었던 한 책에서 만났던 말라위의 한 소년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음과 사투를 벌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만들어 전기를 만



들어냈던 콰콤바라는 소년, 그의 얘기를 읽으면서 아프리카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얘기에 가슴 아파하지만, 정작 가난한 아프리카를 돕기에는 내 힘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에 콰콤바를 마음속으로만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기사 속의 가냘픈 그녀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왜 하필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그 고생이냐고 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애가 아닌가 싶다. 단지 나, 우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넓은 세계인 모두가 한 가족,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생각말이다.

내가 읽은 기사 속의 그녀는 수많은 봉사 대원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품었던 미래의 작가상에 대한 모습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아픔을 치료해주고 꿈을 갖게 해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나 역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콰콤바 같은 소년 소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진정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기사 속의 이봄이 씨나 콰콤바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감동적으로 알려 많은 이들이 희망의 등불로 여길 수 있는 희망의 글 역시 꼭 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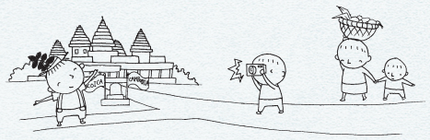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 그것이 이제 나의 인생 지표가 되었다.

고등부
장려상



케냐에서 받은 선물, 큰 물음표

김이수
백현고등학교



"백원의 기적~ 케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녕하세요, 국제 봉사단 꿈캐로입니다."

케냐에 가기 전 모금 활동을 할 때 사용한 구호이다. 지난 1월, 케냐로 자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내가 속해 있던 팀은 케냐에 가기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모금 활동을 했다. 모금 활동을 하면서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케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을 생각하니 처진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 기분만큼은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또, 케냐에 가기 전에 인솔자 분께서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약자. 밀레니엄 개발 목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의 약속.),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 공적 개발 원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 기관에 하는 원조.), 아프리카의 기아와 기근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케냐 관련 서적을 읽도록 숙제를 내주셔서 아프리카의 상황과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성장하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총괄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안겨주었다. 이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도 했고,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나도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과 카타르에서 환승을 하고, 케냐에 도착해서 Komorock Primary & Secondary School의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근한 친구처럼 맞이해주었다. 첫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 한 선생님께서 '사랑해요'라는 한국어를 하셔서 케냐에도 한국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곳의 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나무를 시소 삼아 타고 놀곤 하였다. 신나게 나무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질 것같이 무서운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용감무쌍한 아이들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뾰족하거나 거친 나무의 표면이 부드러운 아이들의 살결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가 되기도 했다. 다치면 소독을 해주고 연고를 발라주어야 하는데, 학교에 소독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교육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메인을 맡은 명찰 만들기+한국어 교육 시간이다. 우선 '안녕하세요'와 '사랑해요'라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아이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서 명찰로 만드는 수업이다. 주 활동은 색지에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 발음으로 써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후에 비닐로 감싸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주고 구멍을 뚫어 명찰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명찰을 만들면서 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그림 그리는 것을 보았다. 또 어떤 아이는 테이프가 신기한 물건이라며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내가 사는 만큼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했던 것에 반성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다. 아이들은 명찰이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항상 명찰을 착용하고 있어서 뿌듯했다.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명찰 덕분에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면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교류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쉬는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한 현지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교류하고 싶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현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덕분에 Komorock School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분은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Komorock School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신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학교 1학년 정도. 케냐는 교원 자격증이 없고, 교장선생님과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나이로비대학교는 한국과 비교하자면 서울대학교인데, 9월에는 나이로비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다고 하니, 케냐의 미래를 이끌 인재이신 것 같다. 과학 선생님과는 페이스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자주 연락하고 있다.

또 내 또래인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들이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박지성을 안다고 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오바마를 아냐며 그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 보였다.

KENYA와 KOREA는 같은 알파벳 K로 시작하여 A로 끝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라도, 지구촌은 하나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케냐의 소녀들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매우 부러워했다. 검은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에서는 평범한 내가, 케냐에서 '주목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매우 부드럽다며 칭찬도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들의 머리 땋은 것이 부러워서 그렇게 땋아달라고 부탁하니,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서 자신의 머리처럼은 만들지 못한다며 계속 머리카락을 만져주었다. 케냐 아이들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내 마음의 난로가 되어주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이 눈에 생생하다.

내가 Komorock School에 가는 마지막 날에, 유독 나를 잘 따르던 초등학생 2명이 나에게 찾아와 손수 만든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자신이 아끼던 껌을 먹으라며 모두 나에게 주기도 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아서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다. 껌은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목걸이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다.

나는 한국의 고등학생으로 생활하며 자유와 여유로움을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케냐 사람들은 언제나 '하쿠나 마타타(아무 문제 없어)'라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여유로움을 가지고 생활한 덕분에, 내가 그들에게 봉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봉사와 사랑을 나누어 준 것 같다.

동전에 양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케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나에게 여유로움이라는 선물을 선사해주었지만, 나 같은 단기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큰 물음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오늘은 날 위해 준비한 선물이 없니?"

이 말은 친해진 케냐 친구가 내게 건넨 인사말이었다.

이 인사말을 들은 순간,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아이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단지 물건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는 큰 상처였다. 자신에게 물건을 달라는 아이는 유독 그 친구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주소를 적어주면서 이 주소로 옷과 신발을 보내달라는 아이, 우리가 케냐의 학교에 도착해서 각 교실을 순회하며 우리 팀 소개를 할 때, 질문으로 우리에게 줄 물건은 가져왔냐고 노골적으로 묻는 아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자신에게 달라는 아이.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봉사보다는 우리가 주는 물품들을 더 원하고 우리보다 물품들을 더 반가워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처음 내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했다. 우리 팀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케냐까지 갔는데, 그들은 우리의 봉사보다는 그들의 생활 용품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내 눈에 비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나의 오산이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질문들은 단기 해외봉사자들인 우리가 결국 그들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베푸는 봉사활동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활동이, 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단기 봉사자들의 기부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거지 근성을 심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물품들을 그들은 물론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돕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의 봉사활동이 과연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오늘날에는 각 국가에서, 국제기구에서, 개인이, NGO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서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다. 국제 개발 협력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는 그들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는 방법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내가 다녀온 케냐 자원봉사 팀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케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무너질 것만 같은 학교 건물,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직접 담아와 케냐 후원 모금함을 만들었고, 네이버 해피빈에서는 콩을 후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게임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무려 500만 원이나 기부를 받게 되었다. 후원 받은 기부금은 이번 하계에 파견된 케냐 팀을 통해 전해졌다. 네이버 해피빈뿐만 아니라, 케냐에 다녀온 팀원 중 원하는 사람은 한 달에 1만 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비록 케냐에는 한 번 다녀온 단기 해외자원봉사이지만, 봉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기부금이 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쓰여진다면, 그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여 장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심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일 뿐,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물음표는 무작정 단기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원봉사가 그들의 힘을 길러주고 지속시킬지 숨겨져 있는 방안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진정한 봉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도교사
소감문



아름다운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

한소연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지난 4년간 학생들과 네팔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 현실과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의 소외를 공부하는 동아리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시작했던 모임이 2년 전부터는 '나마스테'라는 이름을 갖고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의 국제 활동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정부가 네팔에 교육과 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장미회의 봉사와 지원 또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24년 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여자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협력에 대한 국제적 책무 또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역할을 확장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몇몇의 청소년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주로 독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는데, 이후 네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직접 방문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천해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다른 친구들이 문화 체험과 어학연수를 위해 선진국을 선택했을 때 이들은 네팔로 떠났고,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사태로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수십 명의 어린이를 위해 한국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고아원과 문명이 닿지 않은 산지 마을을 방문하여 준비해간 옷과 음식을 나누고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은 문명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충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애정,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담은 귀중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코이카 홈페이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료와 ODA에 대한 정보는 그동안 우리 '나마스테'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자료였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체험을 글로 남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이카 글짓기 공모전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는 부담이었던지 도전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수연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교사로서의 보람을 한꺼번에 안겨주었습니다. 수연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코이카에서 청소년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한데, 작은 수고에 큰 보상으로 격려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잘 가르쳐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소감문



True Pleasure from True Contribution with Love in Everyday Life

이효원
웅상여자중학교 교사

교육의 현장에선 기쁨만큼 아픔의 순간도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마음을 다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자, 가능성을 주자.' 라고 다짐을 하였던 순간 외교통상부와 중앙일보사 후원 한국국제협력단 주최의 글짓기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갖가지 종류의 평가를 위해 학업 증진에만 힘써야 했던 교사로서의 저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인이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좀 더 교육답게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글짓기 공모전을 위한 준비이기보다는, 그것을 계기 삼아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로 마음의 눈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개발도상국을 방문하여 국제 협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학생들과 예를 들면 극심한 황사로 생활이 어려운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교과서 '



Lesson 3 The Great Wall of Green People'을 통한 수업, 푼돈을 모아 사랑의 저금통 만들어 기부하기, 멘토가 되어 멘티 친구의 학교생활 도와주기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베풂의 미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뛰어난 필력으로 쓴 글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베풂을 주제로 글 한 자 한 자에 정성을 들여 진심을 담았기에 수상작으로 채택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 사회에의 공헌이란 일상생활에서 솔선수범하여 도움을 실천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The best teaching comes from the best learning. 학생들과 함께 글짓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저와 학생들 모두 돈으론 살 수 없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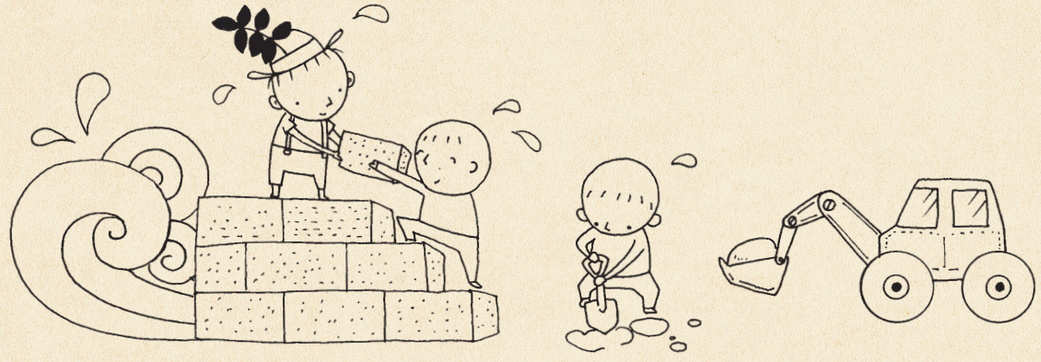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내 삶의 소중한 순간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일이야말로 나와 타인의 삶을 함께 풍요롭게 하는 길이 아닐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학생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아,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모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탐방 견학기





버리기와 채워나가기

이명섭
부천부곡초등학교 교사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법정 〈무소유〉 중

'내 것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갖게 된다.' 좋은 말인 것은 잘 알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입니다. 저 역시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이에게 나눠주려 하지만 항상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아이들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주제로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언젠가 과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님'을 발표한 친구도 있지만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 조사한 친구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봉사에 대한 결연한 의지'나 '세계 평화, 인류 공영' 같은 큰 뜻을 품은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네팔 현장 견학을 통해 만난 많은 봉사단원들은 왠지 우리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냥 옆집 아저씨, 친구, 동생 같은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잠시 버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하지만 너른 마음을 가진 그들과의 4박 5일간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01-428-6782

"해외에서 몇 년씩 근무하는 것이 제일 부러워요."

작년 캄보디아 현장 견학을 갔을 때 저는 캄보디아 코이카 사무소 손성일 부소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 부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잠시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지만 그것이 생활이 된다면 여행처럼 설레는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항상 설레는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세계 여러 나라에 펼치는 코이카 직원들의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첫날 방문한 네팔 코이카 사무소에는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처럼 푸근한 인상의 도영아 소장님과 송기정 부소장님, 핸섬한 백운호 관리요원,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올 박선희 관리요원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도영아 소장님은 코이카가 네팔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견학 일정 동안 방문할 곳과 ODA, DAC 등의 용어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네팔에 있는 많은 봉사단원들이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업

무를 처리하고 현지 사업을 힘차게 전개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을 통해 한국 봉사단원들의 고충도 줄어들고 네팔도 조금씩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두 분의 관리요원은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 견학단을 위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려 노력하셨습니다. 견학 안내 도중 거머리에게 물리기고 하고, 아이들이 짓궂은 농담을 해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견학단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밝은 웃음이 네팔 사람들에게 희망의 웃음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선생님. 한국 가시면 네팔 아이들과 자매결연 맺고 기부 활동을 하세요."

소장님의 부드러운 명령을 귀국하자마자 제 아이에게 외국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네팔을 가게 되면 코이카 네팔 사무소 전화번호 '01-428-6782'번을 누르고 다시 한 번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에 가고 싶은 Surya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진 독일. 그곳에 가고 싶은 젊은 자동차 엔지니어가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맞는 둘째 날 만난 그의 이름은 김선규 국제협력요원입니다. 네팔 이름은 Surya입니다. 국제협력요원은 일반 봉사단원과는 달리 대체복무제의 일환입니다. 코이카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합니다. 컴퓨터, 태권도, 건축, 초등교육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다하고 나눔 활동도 할 수 있는 협력단원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하는 지인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김선규 협력요원은 우리나라 전문대학 정도인 네팔의 뻐나우티 자동차기술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팔은 자동차 부품 공급과 수리 기술이 좋지 않아 자동차들이 심각한 매연을 뿜고 달립니다. 매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는 자동차 창문을 열어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여 환경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김선규 협력요원과 함께 공부한 전문 인력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3시간 넘게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김선규 요원은 네팔에서의 봉사활동이 종료되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무사히 활동을 마치고, 가슴에는 네팔에서 가졌던 따뜻함과 머리에는 독일에서 배운 자동차 기술로 우리나라로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팔어로 된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카트만두에서 왕복 6시간 거리에 있는(사실 거리는 멀지가 않았습니다.) 누와꼿으로 가는 셋째 날. 고운 생활 한복을 입고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견학단 차량에 등장한 정미영 봉사단원은 활력 넘치는 모습과 썰렁한 유머로 약간 지쳐가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정미영 단원은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대학교(Tribhuvan University)에서 한국어를 강의하십니다. 우리 견학 일정에 트리부반대학교는 없었지만 정미영 단원은 우리와 함께 누와꼿까지 동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날이어서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와꼿으로 가는 길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에 쉬는 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멀미가 날 무렵 우리 일행은 겨우 누와꼿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여러 명의 봉사단원들은 우리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정미영 단원을 보고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봉사단원들 사이에서 갖는 위치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어린 봉사단원들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반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르꾸따 지역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아름다운가게와 코이카가 함께한 지역 도서관도 보았습니다. 다시 그 험난한 길을 돌아 카트만두로 가면서 정미영 단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한 봉사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갈등과 고민 속에 자신을 채워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미영 단원이었습니다. 누와꼿을 방문한 이유도 봉사단원들 중 힘들어하는 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듣고 이분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네팔어로 된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네팔에 제대로 만들어진 동화책이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서 하시는 한국어 강의, 다른 봉사단원 챙기는 것에다 동화책까지. 정미영 단원은 많은 것을 채워가는 분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미영 단원은 우기라 히말라야의 흰 산을 못 볼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미영 단원을 통해 버리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다시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흰 산은 올겨울 강원도에서 보겠습니다. 대관령도 저에겐 충분히 높은 산입니다.

못 다 한 이 야 기

넷째 날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다일공동체 '밥퍼'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을 견학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 활동이었는데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나눔이 아닌 실천하는 나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갈보리교회 소속 청년 단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 휴가'를 온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함께 탄 그들에게 반갑다는 눈인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타풀 병원의 삼총사 봉사단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용만 의사, 네팔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이대봉 시니어 단원을 만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모두 모두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 채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남기고 이번 견학에 참여한 이화여고 김수연 학생은 예전부터 '나마스테'라는 이름의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욕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학교로 돌아가 미래 지구촌의 주역이 될 나의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견학 기간 동안 우리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코이카 홍보실 김지영 선생님, 다양한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신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KOICA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오다



오은현
중앙초등학교



벌써 3주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엊그제인 것같이 네팔에서의 짧은 견학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니, 눈만 감으면 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진다.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가왔던 네팔의 어린 동생들이 지금도 내 곁에 다가와 말을 걸어올 것만 같다. 자동차기술학교에서 만난 네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네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넓은 도로 위에 자동차가 쌩쌩 달릴 그날도 꿈꾸어본다.

첫 째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족들을 잠시 멀리하고 손을 흔들며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고서야 내가 네팔에 간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약 7시간을 타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내렸다. 네팔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인데도 덥지 않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날 먼저 반겼다. 차를 타고 우리가 묵을 호텔을 향해 달리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네팔에 오기 전 네팔을 생각할 때는, 가난하지만 히말라야 산 밑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왔었다. 그러나 그곳의 아이들은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몽골의 아이들이 아니라 왠지 아프리카의 빈민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쓰레기들과 지저분한 천 조각을 걸친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책이나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제3세계 후진국의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너무나 정감이 갔다. 기대한 만큼이나 실망도 크려나.



우리들은 이곳 네팔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며 이들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코이카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네팔의 코이카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모토로 하여 네팔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자재를 공급하기도 하며,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서 코이카의 도움이 어려운 네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고, 또한 최소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받고 생활하는 봉사단원에 대해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를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장님의 말씀은 지금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질병,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에 많은 대응과 노력을 통해 다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에게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

둘 째 날

우리는 뻐나우티 자동차기술학교를 둘러보았다. 기술학교 내부는 허술한 우리나라의 창고와 같았지만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네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히 뜨거웠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가난한 나라 네팔을 위해 일할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어서 박타풀 병원에 가보았다. 그 병원은 개원한 지 107년이나 된 오래된 국립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진료비가 싸서 가난한 네팔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오래되어 냄새도 쾌쾌하고 수술 도구와 의약품들도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다. 한국에선 흔한 붕대조차도 귀하다고 하였다. 여쭤보니 국립병원이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코이카에 봉사단원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그리고 방사선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다. 나는 코이카 봉사단원의 활동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네팔 사람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훌륭한 일을 하는 단원으로 생각되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셋 째 날

카트만두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누와꼿의 게르꾸따라는 곳인데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같이 평화로운 곳이었다. 비록 길이 좋지 않아서 차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늘이 너무 맑았고, 또한 옥수수와 벼가 자라고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주 봉강마을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척 반겨주었다. 마을 촌장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동안 아이들은 내내 우리들을 따라왔는데 코이카 유니폼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우리들을 무척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봉사하셨던 신창수라는 분 때문이었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 봉사단원들과 마을 사람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길을 만들었고,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곳에 여자들도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주어 남녀 평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코이카가 화장실도 지어주고 지붕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공부도 가르쳐주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코이카는 이미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 속에서 소망으로 꽃피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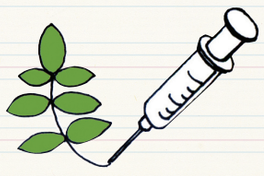
우리는 네팔에 설립된 다일공동체에서 가난한 네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색다른 체험을 느껴볼 수 있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인 다리 밑으로 갔다. 마치 진흙 갯벌을 걷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일공동체의 '밥퍼'였다.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만든 그곳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다. 그곳은 봉사단원들이 네팔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나누어주는 곳이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있었다. 내 또래 아이들은 가슴에 어린 동생들을 껴안고 서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밥을 먹여줄 때마다 내 마음은 눈물 반, 놀람 반이었다. 어서 커서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마지막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카트만두 공항에 갔다. 아쉬움이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다. 왠지 모를 네팔의 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을 가슴에 품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오면서 난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네팔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다.



네팔에 희망을!



정수현
부천부곡초등학교



처음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와는 다른 공항의 모습과 주변 환경이 나를 반겼다. 막상 도착하니 설레기도 하였고 네팔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5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됐었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비행기에서 내렸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좋지 않은 시설이었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들었던 것 같다. 해발 1,300m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말에 걸맞게 눈앞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어 기분이 좋았다. 저 멀리에는 구름으로 뒤덮인 산들도 보였다.

네팔에서 맞는 첫날, 우리는 먼저 빠나우티 자동차기술학교를 방문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꽃을 주며 우리를 반겼다. 코이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덕에 그 학교의 학생들은 자동차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기술학교 방문을 마치고는 박타풀 병원과 한-네 친선병원으로 향했다. 박타풀 병원은 107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병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CT, MRI 등의 의료 기기조차 없었고, 우리나라의 병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환하게 웃으며 근무하시던 자원봉사자 언니와 예쁘게 웃던 네팔의 아기를 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동한 한-네 친선병원은 박타풀 병원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지만, 안쪽에 위치하여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조금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었다.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보이는 한 남자 아이가 우리에게 침을 흘리며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 아이가 불쌍했

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부터 나쁜 길로 빠진 것이 그 아이의 책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누와꼿 지역의 봉사단원 활동 기관을 방문하였다. 카트만두에서 누와꼿까지는 3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한다.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교통 정리도 잘 되지 않는 네팔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네팔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하루 빨리 네팔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서 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네팔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밥퍼'활동이었다.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는 곳인데, 한 번에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온다고 한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소개를 하고, 밥을 먹기 전에 아이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그곳의 예뻤던 아이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주는 일, 식판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어린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일 등 여러 일을 해보았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뜻깊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그곳의 물이었다. 위쪽 화장터에서 흘러내려온 물로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아팠고, 네팔은 세계에서 2번째로 물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 물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 깊숙이 계속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젠 우리가 갚을 때다. 코이카가 네팔과 네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네팔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5일간의 현장 견학이 끝나고 나니 그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여행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네팔 체험 기회를 통해 국제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코이카와, 함께해주신 선생님,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니에게 들려주는 네팔 이야기



김예진
금옥중학교



언니! 이제 4박 5일 동안의 네팔 여행을 마치고 언니가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되겠지? 내가 예의에 벗어나거나 버릇없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항상 핀잔을 주던 언니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더라.

얼른 봤으면 좋겠어. 수능 100일 남았다고 공항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 언니랑 나랑 했던 '지구본 탁 놀이' 있잖아. 지구본을 돌려서 손으로 탁 찍은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나라라고 믿고 그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놀이였는데, 그때 네팔을 찍었던 게 기억나.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였는데, 언니가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고 큰 산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 언젠가 그 높고 큰 산이 있다는 나라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갔다 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게 된 네팔은 구름이 바로 옆에 보이는 예쁜 나라였어. 알고 보니 고도가 높아서 그렇대. 구름이 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걸 보니 무지 신기하더라.

차를 타고 카트만두 시내에 나가보니 너무도 신기한 풍경에 넋을 놓고 구경한 것 같아. 알록달록하고 작은 주택과 가게들, 이마에 붉은 가루를 동그랗게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 더운 여름에도 긴 천을 발목까지 두른 아주머니들, 길가에 앉아 있는 개와 소들, 옆에서 들려오는 생소한 언어들까지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문화에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더라.

지금까지 높은 빌딩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는

데, 이런 새로운 문화 속에 서게 되니 역시 세계는 무척 넓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도 들었지.

그다음 또 기억나는 게 네팔 뻐나우띠 마을에 있는 병원이었어. 이름이 박타풀이라는 병원인데, 처음 들어서자마자 소독약과 땀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윙윙 날아다니는 벌레들까지 있으니 '여기가 정말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 안타까웠어. CT 같은 기계도 거의 없고, 전문 의사도 많지 않아서 큰 수술도 해주지 못하나봐. 시골 보건소와 같은 느낌이었어.

사실 네팔에 와보고선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님들 사진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가난했던 시대 정도로 사는구나.' 하며 막연히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 너무 심한 격차에 좀 놀랐어.

또 차로 20분 정도 가서 한-네 친선병원이란 곳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같이 크고 깨끗한 병원이더라. 솔직히 병원이라고 해서 박타풀 병원과 같은 정도의 병원일 줄 알았는데, 기계나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고 여러 분야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었어.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여 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되는 병원이래. 이 병원 때문에 그 지역 인구도 많아졌을 정도라니까.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주택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병원 규모에 비해 환자가 많지 않았고 광고비도 많이 들어서 요즘엔 운영 비용을 대기도 아슬아슬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 한-네 친선병원을 코이카가 지어줬다는 설명에 왠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뻤어.

옛날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어. 코이카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언니의 말이 실감이 나네. 풋~.

사흘째 되는 날 누와꼿이란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산 옆을 따라 뱅뱅 돌아서 가는 길이라 버스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돌멩이가 쭉 깔려 있어서 울퉁불퉁했어. 이런 길을 3시간이나 달려가다 보니 심한 차멀미에 정말 힘들었어. 게다가 우리 차 옆을 큰 차가 교차하며 지나가야 할 때는 진짜 오금이 다 저릴 정도로 아찔하더라. 길을 가다가 추락한 차를 보았는데 '우리도 그 차처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내가 그 산에다 터널을 뚫어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그러고 보니 네팔은 길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 나흘째에 갔던 뻐슈뻐띠나트 마을의 길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코이카가 질퍽질퍽한 땅에다가 돌을 깔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거기서 진흙 늪 길에 빠졌었는데 이명섭 선생님이 손을 뻗어 구해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온통 진흙투성이로 고생했을 거야. 신발은 물론 청바지 밑까지 흙투성이였어. 결국 운동화를 버리고 와야 했지.

게다가 도로에는 횡단보도도 별로 없지, 중앙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동물들이랑 사람이랑 다같이 도로에 다니고 있었어. 어서 빨리 불편하지 않게끔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

넷째 날에는 다일공동체 '밥퍼' 가 운영하는 곳에 봉사 체험을 하러 갔어.

밥도 퍼보고, 식판도 날라보고, 귀여운 아기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설거지도 하고…….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에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배가 고팠는지 식판까지 핥아먹고서 더 달라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

네팔 아이들을 보면 다 깡말랐는데 배만 뿔뚝 나온 모습이었어.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다른 영양소는 별로 먹지 못하고 빵 같은 탄수화물만 먹어서 그렇대. 그러고 보면 네팔 음식들이 대부분 채소나 과일, 고기 같은 건 별로 없고 탄수화물과 향신료를 이용해 만든 음식

들이 많았어. 나도 4박 5일 동안 비행기에서 먹은 음식을 빼면 과일이라고는 파인애플 몇 조각이 전부였다니까. 과일이 있긴 있었는데 밍밍하고 맛없는 수박과 파인애플이 호텔 식당에 조금 놓여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철없을 때 반찬 투정했던 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 앞으론 주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어.

그러고 보면 네팔 아이들은 너무 귀여워. 우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금 어눌한 발음으로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면 까르르 웃으면서 답을 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었어. 또한 우리 또래인데도 키도 작고 깡마른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 그 친구들은 네팔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커나가게 될 거잖아. 그게 너무 속상해. 자신이 자라고 싶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데 말이야.

언니! 길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이번에 네팔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이야. 네팔은 겨울엔 전기가 부족하여 하루에 4시간 동안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에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호텔조차도 더운물이 잘 나오지 않으며 물도 누렇고 탁했어. 그나마 물의 양은 풍부한 편이어서 수력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선생님의 설명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

나는 부유하진 않지만 안락한 집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밥 굶을 일 없고, 아프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웬만해서는 전기가 나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다가 간간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 걸 생각하면 언니랑 나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부모님의 직업 덕에 우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소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으며 커왔잖아. 엄마가 해주는 가슴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니랑 항상 약속했던 게 생각나.

언니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가, 나는 그들의 삶을 그려내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들자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서로 돕는 밝은 세계를 만들어가자고 했지. 어서 빨리 그 꿈을 이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렇지, 언니?

2010. 8. 13.

동생 예진이가.

만남도 헤어짐도 나마스테



박진하
죽전중학교





간절히 원했던 국제협력단의 해외 현장 견학을 기대 반, 걱정 반을 동반하고 비행기에 올라, 6시간을 날아, 신비한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네팔에 도착했다.

일정 이튿날부터, 빠나우티 자동차기술학교, 박타풀 병원, 한-네 친선병원인 티미, 아동구호기관인 발먼딜, 다일공동체 등을 견학했다. 같이 간 일행 중 네팔이 처음이 아닌 수연 언니에게, 보고 듣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일하고 사람을 상대하며 봉사하는 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많다는 말을 듣고, 직접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바랐던 나는 다일공동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일공동체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내의 빈민촌으로, 차에서 내려 얼마쯤 걷자 '밥퍼 다일'이라고 우리말과 영어로 쓰여진 건물이 보이고, 바깥에 나와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기를 업은 내 동생 같은 나이의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What is your name?" 하고는 내 손을 잡았다. 다정다감한 내 동생 같은 아이의 따뜻함을 느끼며 들어간 건물 안에선 우리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200여 명의 아이들이 박수 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곳 아이들과 통성명을 하고, 같이 어울려 사진도 찍었다. 다들 사진 찍는 걸 좋아해



"One photo!"를 연발했다. 그 아이들 중에 여자 아이가 나에게 분홍색 비눗방울 막대기를 하나 주었는데, 그걸 주며 나에게 짓던 예쁜 미소가 생각난다. 아이들은 잘 웃고, 표정들이 밝았고, 눈이 마주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웃어주었다.그리고 검지와 약지를 서로 맞댄 다음 손에 입을 맞추는 네팔식 인사를 했다.

식사 시간에 갔던 우리들은 식판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면서 일을 찾아 했다. 점심이 끝나자 아이들은 다들 어딘가로 이동했고 책상은 치워졌다.

넓어진 그곳으로 아이들과 아기들이 들어와서 풍선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생들이라고 했다. 책상을 옆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멍석을 깔면 유치원이 되는 것이었다. 세계 어디에나 있는 개구쟁이 아이에게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며 재미있게 놀고 난 후, 그곳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원래는 아무도 안 살던 곳인데 2008년 우리나라에서 후원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길에는 돌들, 개와 염소 등의 배설물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진 길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다일공동체를 떠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곳 현지의 일하시는 분들께도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들에게서 또다시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들으니 굉장히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스스럼없이 대해주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잘 웃으셨던 네팔 아주머니들의 따스함, 헤어질 때 기도로 우리의 안녕을 빌어주신 아저씨들. 그곳에서 한껏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까지 든든했었다.

말 그대로 너무 예쁜 그들이 있는 다일공동체를 떠나며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고 왔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고 빌어본다.

네팔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면, 웃으며 "나마스테."라고 답해주는 그 곳 사람들이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정감 있게 다가왔다.

박타풀 병원에서 마주친 아이의 눈에서 내 동생이 보였고, 다일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미소에서, 우리를 축복해주시던 아저씨들에게서 엄마와 아빠를 보았다.

4박 5일 동안 코이카 직원 분들을 여러분 뵙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진심으로 하고 싶어야 하는 일이고, 사명감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봉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우리나라를 떠나 네팔에 와서,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서'라면 충분히 답이 된 것 같다.

우리 말에 이런말이 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란 말이다.그리고 쉽게들 그말을 쓴다.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어렵다는, 초심을 유지하기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네팔의 인사말, '나마스테.'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똑같은 인사말, '나마스테'.

네팔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팔을 다녀와서도 잊지 않고, 나를 네팔로 가게 해준 공모전 글을 쓸 때의 마음에 더하고 더해서, 그때의 마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나마스테!'라고 나에게 다짐한다.

네팔에서의 귀한 인연과 경험들이, 외교관이 꿈인 나에게 인간을 위한 외교관이 되어야겠다는 더 보태어진 장래희망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4박 5일.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네팔을 다녀와서 생각나고 보고 싶은 백운호 선생님, 김종석 선생님, 현지 가이드 아저씨, 다일공동체 식구들, 네팔 현지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동생 같은 네팔의 아이들…….

소중한 인연을 맺은, 그림처럼 예쁜 그들에게 '나마스테!' 라고 내 마음의 인사를 전해본다.



네팔을 향한 나의 인사, 최고!

김수연
이화여자고등학교



나마스테~ 약 2년 만에 다시 찾은 네팔. 비행기에서 내린 후 네팔 국제공항에 들어갔을 때 그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반갑게 웃으며 공항 직원들과 "안녕하세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태양이 마치 우리를 반겨주듯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네팔'이라는 국가의 존재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네팔'은 소중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네팔에 가면 나는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마스테!"라고 먼저 인사를 한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도 어감이 좋지만 왠지 "나마스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특히 내가 "나마스테!"라고 먼저 인사를 하는 이유는 인사했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팔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하얀 이를 보이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나마스테' 말고도 네팔어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는 '마야거르쵸'와 '쁘롬가르쵸'이다. 둘 다 '사랑합니다'라는 뜻인데, '쁘롬가르쵸'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애정의 표시로는 '마야거르쵸'를 쓴다.

네팔에 봉사활동 갔을 때 고아원 아이들과 젯방 족 사람들에게 나는 열심히 "쁘롬가르쵸!"라고 외치고 다녔었다. 네팔어를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나는 이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나의 진심과 사랑, 감사를 전할 수 있었고, 또 이 말을 함으로써 네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짧지만 그 한마디 언어의 위대한 힘을 알았기에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도 나는 역시 한마디를 함으로써 만나는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은 바로 '최고'. 특히 발음하기도 쉽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드는 손모양도 쉽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도 곧잘 따라했다.



당신은 '최고'의 나눔을 실천하는 천사입니다

코이카는 한국의 도움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그들은 8주간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총 2년 동안 파견된 곳에서 그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네팔에는 기술학교에서부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사, 간호사, 유아교육, 한국어 교육, 사회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코이카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전 세계의 빈곤한 수도 중 하나이니 카트만두를 벗어난 네팔의 다른 지방 도시들의 생활 상태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네팔은 세계 수자원 보유 2위인데도 이들은 먹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네팔은 수력발전에 의존하는데, 하루 평균 16시간씩 정전 상태가 계속된다.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배층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인도에 팔아 그 돈으로 자

기들은 잘살고 정작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만난 봉사단원 선생님들의 표정에는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웃음이 가득했었다. 봉사단원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네팔사람들은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게르꾸따 마을을 방문했을 때이다.





게르꾸따 마을은 네팔의 도시 중 하나인 누와꼿 안에 위치해 있다. 원래 게르꾸따 마을은 네팔의 다른 도시의 마을처럼 발전이 더디고 외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이카 봉사단원이신 신창수 선생님이 오신 뒤부터 이 마을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신창수 선생님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토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모토를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어 게르꾸따 마을을 하나 둘씩 바꾸어나가셨다. 먼저 선생님은 게르꾸따 마을 안에 시멘트 길을 만드셨다. 그 전에는 진흙길이어서 학생들도 학교에 오기 불편하고 마을 사람들도 밭에 일하러 가기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진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길을 만듦으로써 외부와의 활발한 접촉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길을 만드시고 나서 선생님은 코이카의 도움을 얻어 기존 시설이 너무나 미흡한 학교에 컴퓨터실도 만드시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교실 수도 늘리셨다. 실제로 그 학교에 가보니 컴퓨터실도 한국 학교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큼 깔끔했고 교실도 정전이 자주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우 깨끗했다. 신창수 선생님은 게르꾸따 마을을 개선시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이 마을을 'Small Korea in Nepal'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네팔에 가서 신창수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오진 못했지만(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서 봉사 중이시라고 한다.) 그 현장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창수 선생님과 코이카에 정말 많은 감사를 느낀다고 하였고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이 해주셨던 말씀, 내가 본 마을 모습의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게르꾸따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코이카 봉사단원 선생님들의 노력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비록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나는 모든 코이카 봉사단원 선생님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소중한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 쓰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나는 앞으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역 시 '최 고 ' 야 !

8월 12일 목요일, 우린 다일공동체에서 하는 '밥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다. '밥퍼'는 지역 마을 아이들에게 주 6회 아침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으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우리가 갔을 땐 이미 아이들이 앉아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는 들어가자마자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아이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 현지인 다일공동체 직원 분의 지시와 함께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시작되었다. 다른 봉사활동 단체에서도 오셔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손이 남아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역할을 맡았다.

먼저 아이들과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한 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좋은지 내가 물어보면 얼른 대답했다. 한 아이가 말하면 그다음 아이가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커다란 눈망울로 날 보는 모습도 굉장히 귀여웠다. 또한 내 이름도 궁금했는지 수줍게 나를 가리키며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내가 "My name is 수연!"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은 '연' 발음이 어려운지 자꾸 '수'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다음은 '최고'였다. 아이들은 모두 순수한 눈망울로 생글생글 웃으며 내가 "최고!"라고 먼저 외치면 더 즐겁게 "최고!"라고 외쳤다.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나는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가르쳐주었다. 아이들은 한국말이 서툴러도 굉장히 열심히 불렀다. 그렇게 한참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장난도 치며 즐겁게 놀고 있을 때, '밥퍼' 봉사가 끝나고 아이들도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아쉽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끝맺어야 했다. 봉사가 끝나고 다일공동체 직원 분들과 함

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의 청결 상태나 위생 관리 등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마치 태안이 기름에 오염되었을 때 그 해안가를 보는 듯 길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오염물질이 흙과 섞여 도저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내가 만난 마을 사람들은 먼저 인사를 하면 모두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외국인의 방문이 신기했는지 집 밖으로 나와 먼저 반갑게 손 흔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수줍어서 문 밖으로 얼굴만 내미는 분들도 계셨다. 한창 마을을 둘러보던 중에 아이들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아주 자그마한 유치원이 있었다. 문 밖에 서서 아이들과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아이가 "최고"를 외쳤다. 나는 누가 그러는지 잘 몰라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같이 '최고'를 외쳤더니 아주 귀여운 주황색 조끼를 입은 남자 아이가 나를 향해 더욱 신나서 '최고'를 외치고 있었다. 이 귀여운 남자 아이는 내가 '밥퍼' 봉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인사하고 '최고'를 가르쳐주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먼저 '최고'를 외쳐주다니! 아이는 이제 막 주변 아이들에게도 '최고'를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 우린 모두 다같이 '최고'를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최고'란 말을 통해 순식간에 나는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한 마음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 네팔을 떠나기 하루 전 그 아이가 보여준 '최고'의 감동…… 역시 '최고'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네팔에 다시 한 번 간 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다. 주변에서 고3인 나의 네팔 국제 협력 현장 방문을 걱정스런 눈으로 보았을 때 솔직히 조금 불안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 나는 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말로만 듣던 코이카 봉사단원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던 일들, 네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분들의 열정, 그리고 네팔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이번 네팔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네팔을 다녀오며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생활 태도와 다같이 잘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도 깨닫고 왔다. 내가 깨달은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팔을 다녀와서



김지혜
서해고등학교





4박 5일 동안 나는 네팔을 다녀왔다.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고 대략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갔다. 네팔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냄새를 비롯한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환경까지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세계 공항 중에 2위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던 탓인지 내 눈에 네팔 공항이란 정말 허술하고 좁았다. 공항에서 나오자 네팔 코이카 사무소 선생님들이 마중을 나와주셔서 다행히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호텔까지 이동하면서 지나쳐 온 네팔 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박타풀 병원의 선생님들 그리고 네팔의 현실

네팔 코이카 사무소를 비롯해서 코이카에서 후원하고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 하나는 박타풀 병원이다. 카트만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인데 우리나라의 병원과 정말 비교되는 곳이었다. 이게 병원인가 싶을 정도의 외관. 이 병원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병원은 정말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병원에 들어가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계



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는 네팔 병원의 현실,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작은 병치레들은 확인할 수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하다 못해 발에 가시만 박혀도 병원에 가는 대한민국 사람들과 그들은 달랐다. 벌레들부터 시작해서 병실은 환자가 아닌 더위가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마저 전문가가 아닌 코이카 선생님들께서 교육시킨 네팔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몇km 되지 않는 거리일 뿐인데도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병원은 이곳, 박타풀 병원과 수준이 다르다고 했다. 아무리 빈부격차가 심하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없다는 것.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어봤자 얼마나 멀다고 빈부격차가 이리도 심할 수 있는 것인지, 새삼 네팔이 성장이 더딘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밥퍼'로 만난 인연

네팔 견학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시간, 네팔 아이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은 이시간, '밥퍼'를 하던 시간이였다. 네팔의 빈민가에서 이루어진 밥퍼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주는 활동이었다. 밥퍼를 하러 들어가는 순간 큰 박수 소리와 우리를 향한 네팔 아이들의 노랫소리, 정말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과 함께 애틋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팔에 와서 한 번 먹어보았던 달밧, 오늘 네팔 어린이들의 식사는 달밧이었다.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식판 하나하나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건네면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대했다. 조금은 서투른 영어로 이름을 묻기도 하고 나이를 묻기도 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미소 덕분이었는지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주었다. 밥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아이들 사이로 정말 어려 보이는 아기가 있었다. 옆에 있던 그 애 오빠가 자기 밥 먹으랴 동생 밥 챙겨주랴 힘들어 보이기에 다가가서 아기 밥은 내가 먹여주겠다니까 선뜻 숟가락을 내게 건넸다. 숟가락을 받고 아기에게 밥을 먹여주려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인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얼른 아기를 무릎에 앉혀 밥을 먹였는데 아기는 밥을 먹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밥을 힘겹게 씹는다는 것. 이렇게 어린 아기를 왜 엄마가 챙기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어린 아기를 어린 오빠에게 맡겼을 만큼 이 아이들의 엄마도 힘들겠다는 생각때문이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의 부모 모두 핏덩이들을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길 만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이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정말 다시 한 번 우리의 손길에 대한 간곡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네팔에서 보낸 4박 5일.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들. 애틋함 그리고 감동. 곱씹을수록 눈물이 핑 도는 기억들. 나에게는 정말 뜻깊었던 시간들이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세상의 전부가 공부라고 생각했던 내게 네팔은 또 하나의 세상이고 또 하나의 시간이었다.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상의 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모든 이들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법. 비록 지금은 힘든 나날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나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다. 4박 5일 내내 애틋함이 맴돌았던 네팔 견학. 코이카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그들에게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KOICA를 소개합니다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는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가 하는 일

KOICA는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이들 국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7개 분야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도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 •••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시설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건강을 위해 KOICA는 개발도상국에 의료 시설을 짓거나 진료를 통해 그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행정 제도 •••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부가 스스로 발전하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행정제도를 그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 ••• 전 세계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KOICA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적 경험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 도로, 댐, 다리와 같은 시설은 그 지역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KOICA는 이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기타 •••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오염은 빈곤층에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OICA는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오염된 환경은 개선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3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13회 KOICA 글짓기 공모전은 33일간의 접수 기간 동안 국내외 386개의 학교에서 참여하여 총 1,000여 편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이 중 36명의 학생과 3명의 지도교사가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상인 고등부 대상은 '나마스테, 쁘롬가르쵸'를 쓴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수연 학생이 수상했으며, 중등부 대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쓴 금옥중학교 1학년 김예진 학생이, 초등부 대상은 '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를 쓴 중앙초등학교 6학년 오은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또한 지도교사상은 부천부곡초등학교 이명섭 교사, 웅산여자중학교 이효원 교사, 이화여자고등학교 한소연 교사가 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여준 지구촌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당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2010년 7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KOICA 본부 청사에서 제13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편집후기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KOICA 글짓기 공모전」은 접수 기간에 기말고사와 일제고사가 겹쳐 학생들에게 매우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입상작을 포함해 접수된 작품들 상당수가 실제 자신들의 해외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이야기와 생각들을 담고 있어,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글짓기 공모전에 참여한 많은 글들은 '왜 우리가 가난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글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준다는 따뜻한 박애정신을 주장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풍요가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당부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 친구들의 글은 우리 KOICA 홍보실 직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초심으로 돌아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이 써내려간 글에 담긴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앞으로 지구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작은 소망은 머지않아 가난과 빈곤 속에 있는 지구 어딘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커다란 힘으로 자랄 것임을 확신합니다. KOICA는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 청소년들과 항상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KOICA 홍보실 드림

제14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KOICA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차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국제 개발 협력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 속에서 열리고 있는 글짓기 공모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글짓기 주제

- 모든 나라가 함께 잘사는 방법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나의 각오와 자세
- 개발도상국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랑스런 한국인
- 기타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글

응모 요령

응모 부문 글짓기(산문)
공모 기간 2011년 5~6월 중
공모 대상
전국 초등학교 6학년 및 중·고등학교 전 학년
국내 및 재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또는 A4 용지 2매 이상
A4 용지 작성 시 글자 크기 13포인트, 줄 간격 160% 기준

발표 및 시상

발표 일자 7월 중
※국제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ica.go.kr)에 게재하고 해당 학교 및 입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시상 일자 및 장소 7월 예정, 한국국제협력단
시상 내역 초·중·고등학교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지도교사상/우수 수상자에 대한 해외협력사업 현장 견학은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 예정(대상 국가 추후 결정)

참고 사항

응모 작품은 국내외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하며, 주제와 원고 기준에 적합한 글이어야 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협력단에 귀속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참조.

WORLD FRIEND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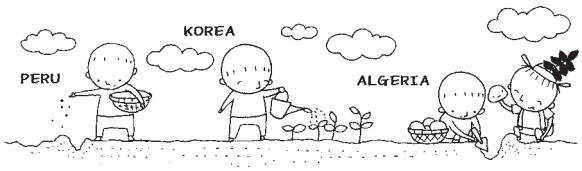
World Friends Korea는 우리나라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새 이름입니다. 2009년 5월 7일, 그간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해외봉사단 사업이 단일브랜드 World Friends Korea로 통합되었습니다. World Friends Korea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 이웃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KOICA


KOICA


KOREA
EGYPT
Computer Training Center
KOICA


KOICA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www.koica.go.kr